글로벌 무기 공급 부족과 군비 경쟁, K-방산의 시간

한국 방산 수출 주력 무대를 중심으로

삼일PwC경영연구원 I Industry Focus
June 2026

Contents

1. 방위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3**

1.1 글로벌 분쟁의 증가 4

1.2 미-이란 전쟁으로 본 전쟁의 양상 6

2. 구조적 성장세에 있는 방위산업 **7**

2.1 글로벌 방위비 증가로 본 방위산업 성장세 8

2.2 글로벌 무기 거래 데이터: 2011년 이후 최고치 12

2.3 한국의 방위산업 위치와 무기 수출 경쟁력 15

3. 한국 방위산업의 주력 수출 지역 **17**

3.1 한국 방위산업 주력 수출 무대: 유럽, 중동, 북미 18

3.2 유럽의 재무장 20

3.3 중동의 부각 23

3.4 북미시장의 기회 26

4. 결론 **29**

4.1 시사점 30

4.2 전략적 제언 31

[Appendix 1] 글로벌 방위산업 관련 주요 데이터 33

[Appendix 2] 유럽 국방정책 36

[Appendix 3] 유럽지역 수주 및 현지화 현황 37

들어가며

2022년 전면전으로 확대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만 4년이 훌쩍 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미-이란 전쟁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무색하게 3개월을 넘어섰다. 휴전 중에도 중동의 곳곳에서는 군사 공격/폭격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글로벌 무력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계 각국가들은 무기고를 채우기에 바쁘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을 제시했다. 혹자는 작금을 글로벌 신냉전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통적 우방과 동맹의 결속은 약화되고, 갈등과 분쟁이 상시화되고 있다.

유럽과 중동 뿐만 아니라 일부 아시아의 국경지역의 무력 분쟁 등 글로벌 분쟁의 빈도수 증가와 자국안보의 중요성 부각으로 인해 글로벌 방위산업은 구조적 증가세에 놓여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방위비」 확대와 「무기 거래 데이터」 로 확인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방위비」와 「무기 거래데이터」를 통해서 최근의 방위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한국 방위산업의 기회 요인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방위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1.1 글로벌 분쟁의 증가

증가하는 글로벌 무력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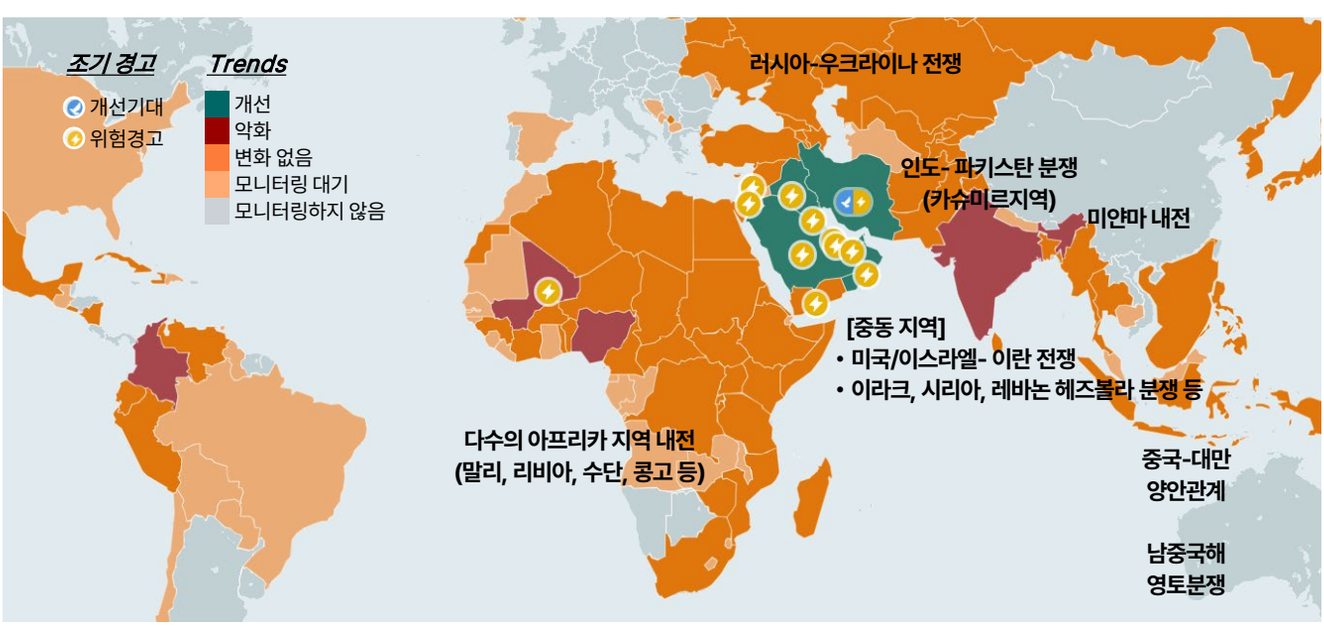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른 글로벌 분열의 확대 및 잦은 무력충돌 → 방위산업 구조적 성장 요인

글로벌 방위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분열 및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무력 충돌, 각국 정책으로 볼 때 이는 단순한 전쟁 테마가 아닌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고, 잦은 무력 분쟁이 전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러-우 전쟁 장기화, 중동지역의 빈번한 분쟁, 중국과 대만의 양안문제, 중국-아세안 국가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의 도련선 전략[1] 등 중국의 해양 주도권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도 지정학적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인도- 파키스탄 분쟁, 태국-미얀마, 태국-캄보디아 국경 부근에서의 빈번한 교전 등 전세계 곳곳에서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지속되고 있다.

실제 GPR index(Geopolitical Risk Index; 지정학적 리스크 지표)는 1985년 이후 걸프전, 911테러, 이라크 전쟁 등의 굵직한 전쟁 및 충돌에 급등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지표의 급등세가 잦아지고 있다.

[도표 1] 세계의 분쟁지역 GPR Index (Geopolitical Risk Index)



자료: CrisisGroup, 삼일PwC경영연구원

1) 중국 도련선 전략: 도련선(島鏈線, Island Chain)이란 섬과 섬을 잇는 가상의 해상 경계선으로, 자국의 해양 안보와 세력권 확장을 위해 설정한 방어·공격 전략선임. 이 개념은 원래 1951년 미국 국무장관 존 덜레스가 당시 소련, 중국 등의 공산권 봉쇄를 위해 제시한 '봉쇄선'에서 유래했으나,1980년대 이후 중국이 해양 진출 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 류화칭(劉華淸)은 1980년대에 이를 '근해 적극방위전략'의 핵심으로 자국 해군 전략에 편입해 제1도련선을 방어 경계선으로 공식화함
- 제1도련선: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류큐열도, 타이완섬,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본토 근해. 대체로 주변지역에 대한 완충지대 확보가 목적
- 제2도련선: 그 바깥의 오가사와라 제도,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근해. 서태평양 연안 지대에 대한 장악이 목적
- 제3도련선: 알류산 열도, 하와이, 뉴질랜드 일대. 서태평양 전역에 대한 장악의 목적

[도표 2] GPR Index (Geopolitical Risk Index)

자료: Caldara and Iacoviello, 삼일PwC경영연구원

Note. **GPR Index:** 지정학적 긴장을 다룬 신문 기사들을 집계하여 불리한 지정학적 사건과 그에 따른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 1900년 이후 그 진화와 경제적 영향을 분석. 지정학적 위험(GPR) 지수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 한국 전쟁 발발 초기, 쿠바 미사일 위기, 그리고 9·11 테러 이후에 급등. 지정학적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 주가,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위험이 높을수록 경제 재앙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계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지수 구성: Recent GPR index, 10개 신문의 자료를 사용하며 1985년부터 측정 시작/ Historical GPR Index는 3개 신문 자료 사용, 1900년부터 시작/ 39개 국가에 대한 국가별 지수도 구축

상시적 분쟁과 긴장 상태→ 안보의식 강화와 무기수요 확대로 연결

지정학적 불안과 안보의식 강화로 무기수요 확대

글로벌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축소하고 각 국가별 방위비 분담금 확대 촉구하고 있다. 동맹국의 자주 국방 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특히 NATO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유럽은 미국의 압박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빠른 무기 재고 소진으로 국방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동도 잦은 분쟁과 미-이란전쟁에 따른 무기 소진 및 이란의 걸프만 국가 공격 등으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1.2 미-이란 전쟁으로 본 전쟁의 양상

이란전쟁의 특징: 분쟁의 상시화, 이해관계에 따른 동맹 결속 약화, 다층 방공망과 소모성 무기 부각

미-이란 전쟁에서 나타난 특징은 러-우 전쟁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분쟁 및 충돌의 상시화**이다. 미-이란이 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동 걸프 국가와 이란간 상호 공격 및 국지적 교전이 발생하고 있다. 양측이 원하는 바에 대한 합의가 도달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저강도 공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글로벌 **각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의 결속 약화와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나토 탈퇴 시사 및 유럽내 역할 축소에 대한 지속적 언급과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방위비 부담 확대를 강조하는 점도 동맹 결속이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번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나토와의 동맹이 재정의했다고 평가된다. 일례로 미-이란 전쟁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주요국은 자국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대부분 거절하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 일부 철수 및 독일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를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36,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프리카 사령부의 본부가 위치한 핵심지역이다. 이는 단순 병력의 철수를 넘어서 글로벌 미군 재배치 신호탄으로 해석됨과 동시에 미국에 협조하라는 압박을 동맹국에게 표시한 것이기도 하다.

셋째, **무기와 관련하여 소모성 무기와 다층 방공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미-이란전쟁에서도 러-우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장에서 드론의 활약상이 높고, AI 및 첨단기술이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미- 이란 전쟁에서는 저강도 분쟁이 상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모성 무기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즉 탄약, 포탄, 드론 등 지속 · 반복 구매가 요구되는 소모성 무기의 중요성이 커졌다. 또한 미사일, 탄도탄, 드론 등이 동시에 날아드는 공격이 반복되면서, 영공 방어를 위해서는 고가의 정밀 요격무기에 의존하는 단일 방공 시스템으로는 불충분하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탄도 · 순항 · 드론 요격을 통합한 다층 방공망 강화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 방산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전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방공 무기, 탄약, 포병, 전차 등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 이란 전쟁에서 천궁-II[2)]의 요격율이 96%를 기록하는 등 방공 무기에 대한 성능이 입증되어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분쟁의 빈도 증가, 지정학적 분쟁의 상시화 및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유럽과 중동의 무기재고 감소, 자주 국방 안보의식 강화 등에 따라 방위산업은 구조적 성장 환경이 갖추어졌다. 이런 흐름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에서 최근 발표한 글로벌 방위비 지출 규모 및 무기거래 트렌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천궁-II: 대한민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천궁(天弓)을 성능개량한 모델. 항공기와 탄도탄을 동시다발적으로 표적·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방공무기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으로 꼽힘. 천궁-II는 작전, 전개, 운용이 용이하며 수직발사를 통한 전방위 사격능력과 고속비행체 대응능력, 고기동성과 정밀유도 조종 성능을 갖춤.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통제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기술, 다표적 동시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 항공기 요격 유효 사거리 50km, 항공기 요격 고도 20km이며, 탄도탄 유효사거리는 20km, 요격 고도는 15km로 패트리어트 III와 비교됨.

- 개발에는 LIG넥스원(미사일·체계 종합), 한화시스템(레이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발사대·차량) 등이 참여

2

구조적 성장세에 있는 방위산업

2.1 글로벌 방위비 증가로 본 방위산업 성장세

글로벌 방위비 규모: 냉전 이후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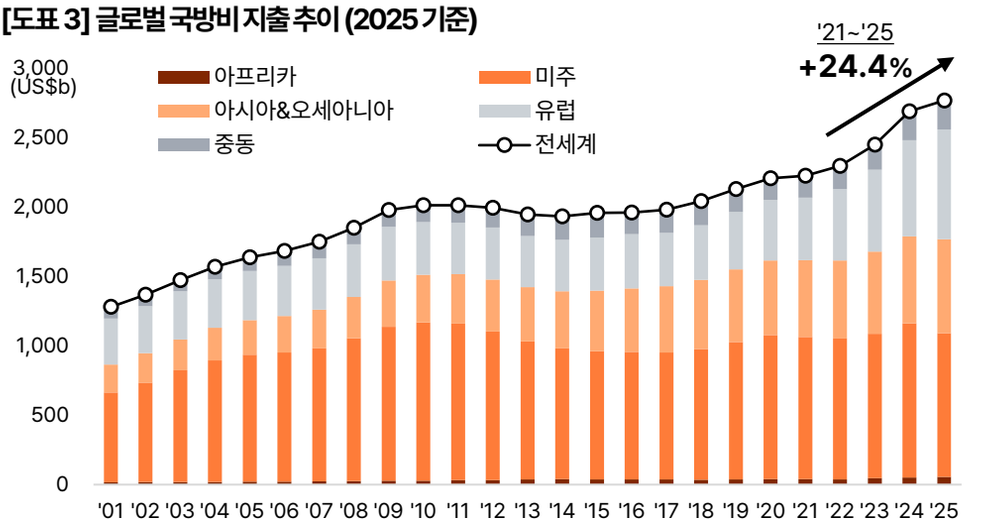
글로벌 방위비 11년 연속 증가. 미국이외의 지역 증가세

SIPRI에 따르면 2025년 전세계 방위비 지출규모는 11년 연속 증가하여 냉전 이후 역대 최대인 2조 8,870억 달러(약 4,250조원)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실질 기준 2.9% 증가한 수치로 2024년 증가율인 9.7% 보다는 다소 낮으나 미국의 방위비가 7.5%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가이다.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방위비 지출은 9.2% 증가하였는데, 유럽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의 방위비 지출 증가가 글로벌 방위비 상승을 견인하였다. 미국의 방위비 감소 요인은 우크라이나에 신규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세계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은 2.5%로, 2024년 2.4%보다 소폭 상향되었으며, 전세계 정부지출 대비 방위비 비중은 6.9%로 지난해 7.0%보다 소폭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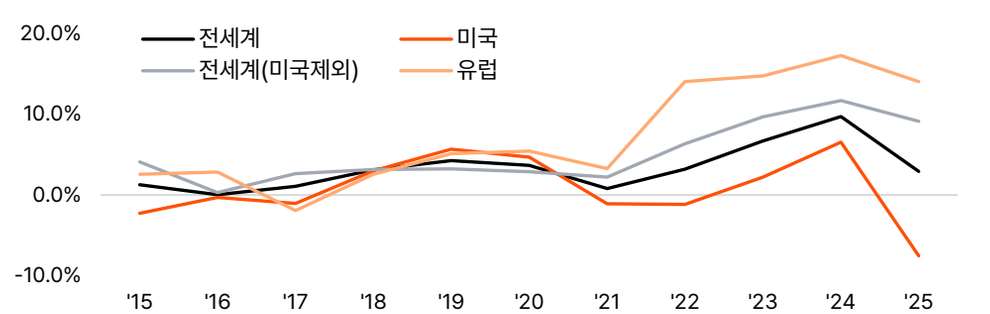
글로벌 방위비 규모는 소수 상위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25년 방위비 지출 상위 5개 국가의 비중이 58%로, 상위 40개 국가의 비중은 9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p.33 「Appendix 1-① 국가별 방위비 지출 규모」 참조)

[도표 3] 글로벌 국방비 지출 추이 (2025 기준)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4] 전세계 군사비 지출액 증감 추이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지역별 방위비 지출 규모 변화 - 유럽의 방위비 점유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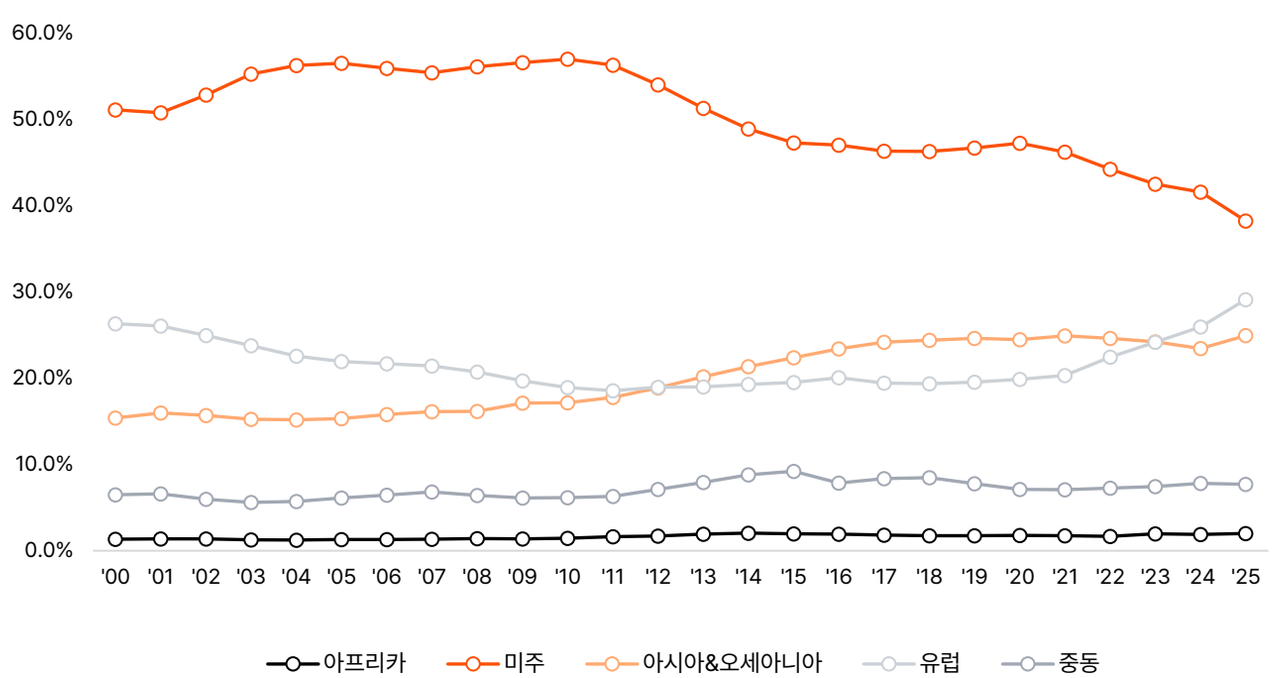
유럽의 글로벌 방위비 점유율 급증

지역별로 두드러진 현상은 유럽국가들의 방위비 급증이다. 2025년 유럽 전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4%, 러-우 전쟁 발생 이전인 '21년 대비 75% 증가하였다. '25년 지역별 방위비 지출 비중은 미주 38.2%, 유럽 29.1%로 2021년 대비 미주 비중은 8.0%p 축소된 반면, 유럽은 8.8%p 상승하였다. 유럽 최대 방위비 지출 국가인 독일은 전년 대비 24%,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49.0%, 20.1% 증가하는 등 유럽 주요국의 증가율이 높았다.

2025년 기준 글로벌 전체에서 NATO의 방위비 점유율은 55%이며, 이중 NATO 유럽 회원국의 점유율은 2015년 15%에서 2025년 20%까지 상향되었다. NATO 유럽 회원국은 러-우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원조성 군비 확대, 미 트럼프 대통령의 NATO에 대한 군비 증강 압력에 따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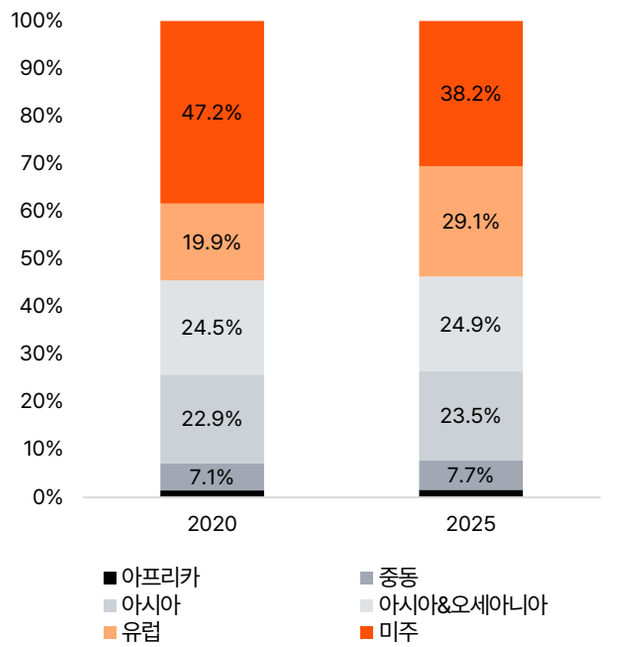
2025년 기준 NATO의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은 2.3%로 NATO 중장기 목표인 5%와 비교시 아직까지 현저히 낮다. 중장기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조적인 군사력 증강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방위산업의 성장은 구조적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5] 대륙별 방위비 지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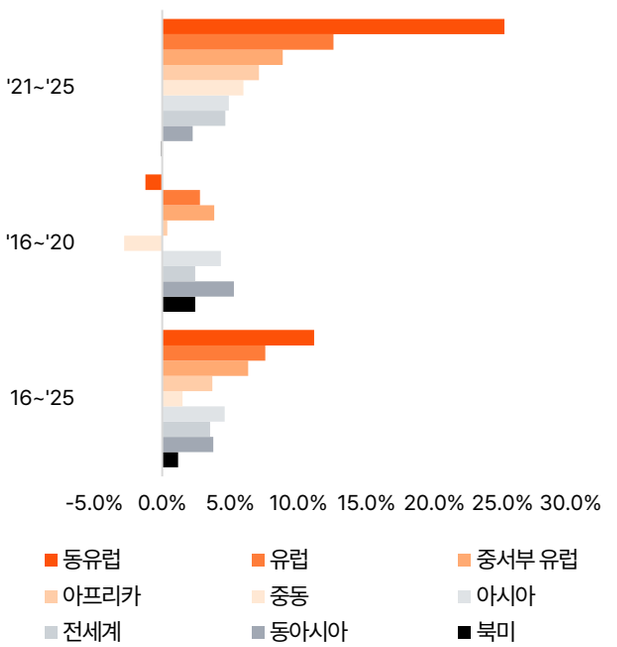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6] 지역별 국방비 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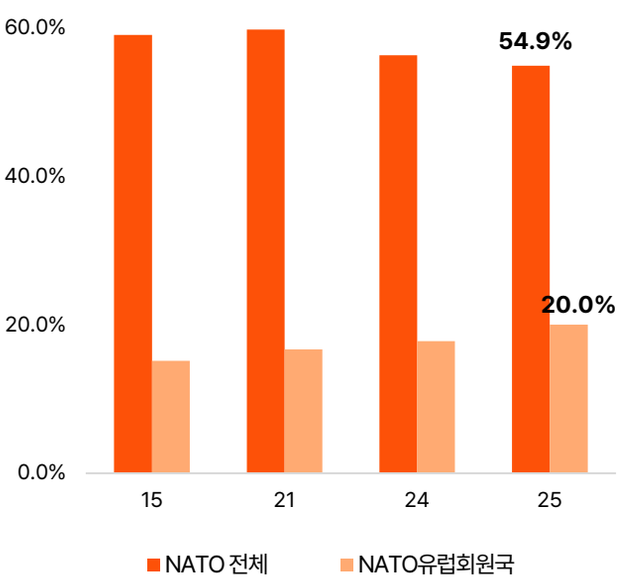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7] 지역별/기간별 방위비 연평균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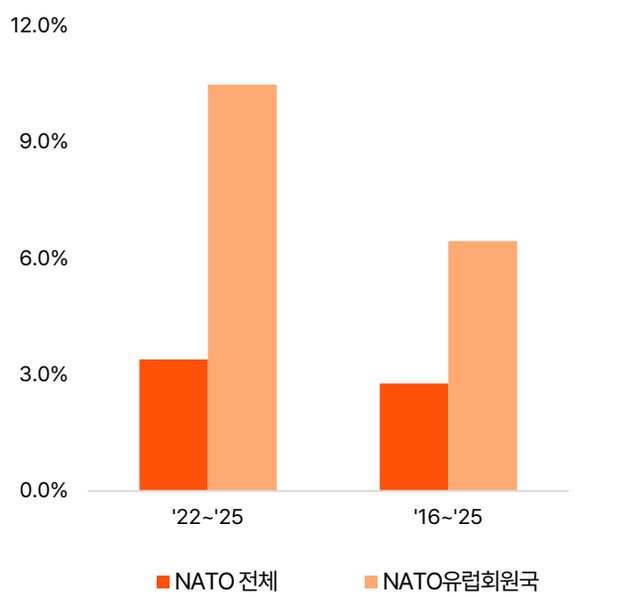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8] NATO의 글로벌 방위비 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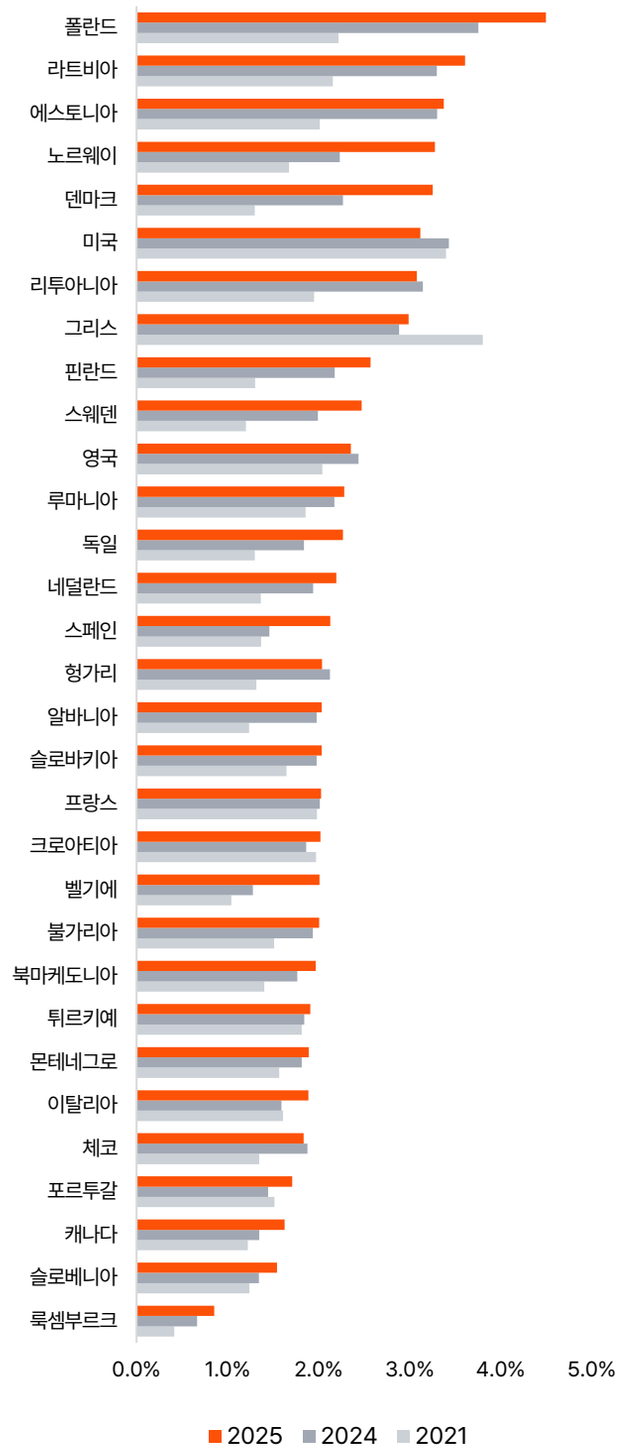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9] NATO의 연평균 방위비 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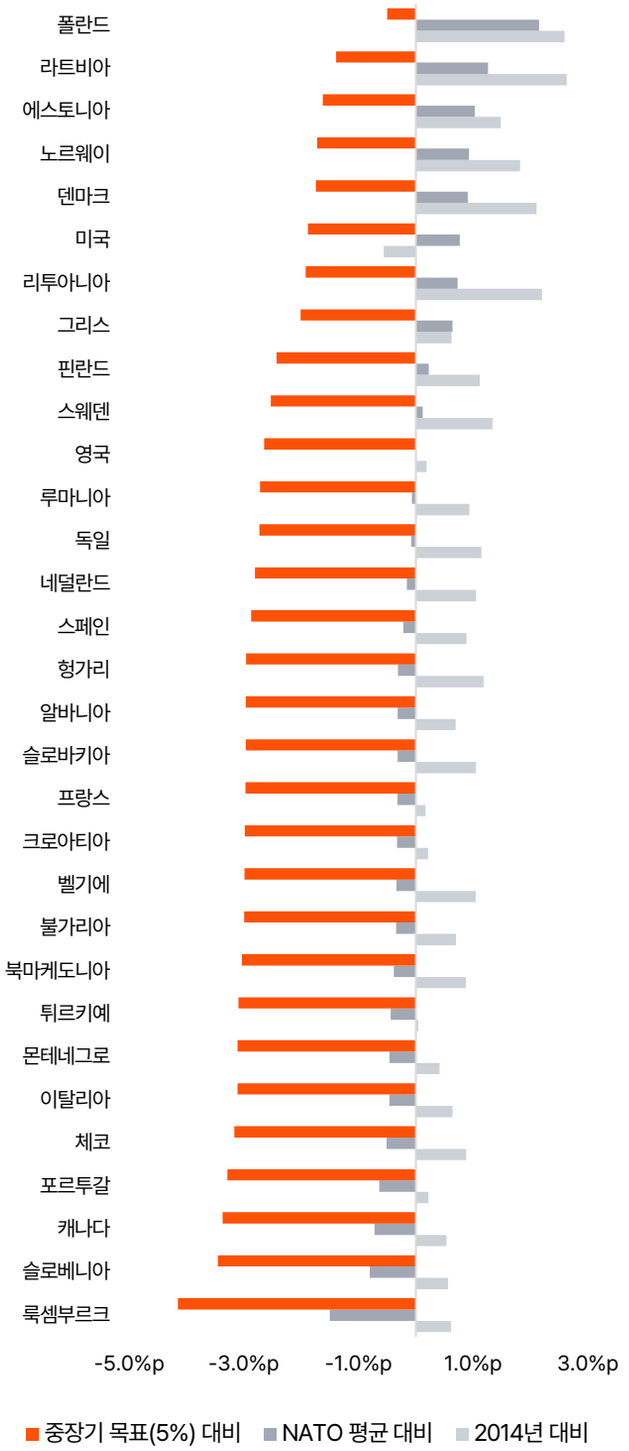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10] NATO 회원국의 GDP 대비 방위비 부담 비중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11] NATO 회원국의 GDP 대비 방위비 비중 GAP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2.2 글로벌 무기 거래 데이터: 2011년 이래 최고치

무기거래액, '11~'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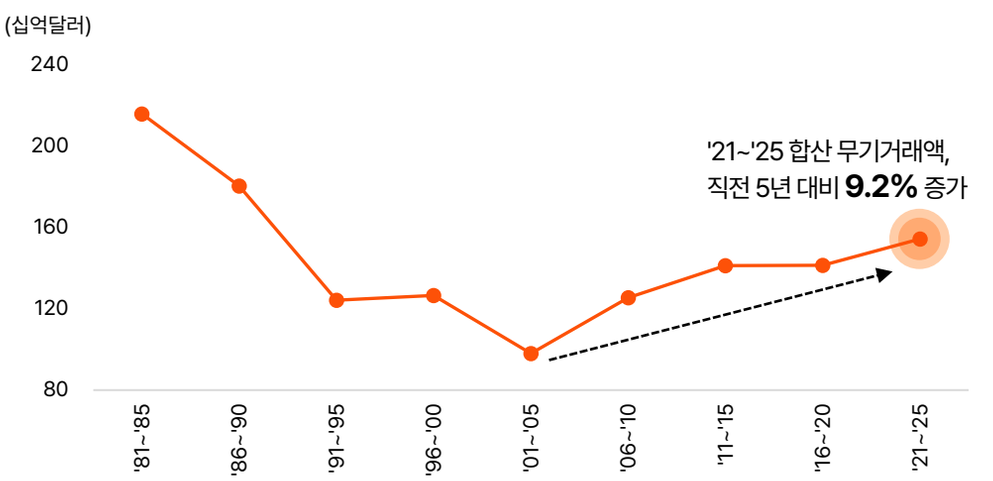
전세계적인 방위력 증강 및 무기 수요 증가는 무기 거래 데이터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최근 발표한 '21~'25년까지 최근 5년 합산 무기 거래액은 직전 5년('16~'20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11~'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무기 거래액은 '01~'05년 이후 '10년대 후반 정체기에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무기 수요를 흡수하는 유럽

지역별 무기 수입에서의 특징은 첫째, **유럽 지역의 수입 급증**이다. 최근 5년 유럽 지역의 무기수입은 직전 5년 대비 3배 이상(+210%)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전체 무기 수입 규모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직전 5년('16~'20) 11.6%에서 최근 5년('21~'25) 33.0%로 급상승하였다. 이는 러-우 전쟁 영향으로 우크라이나의 수입 증가, 자국 무기 재고 확충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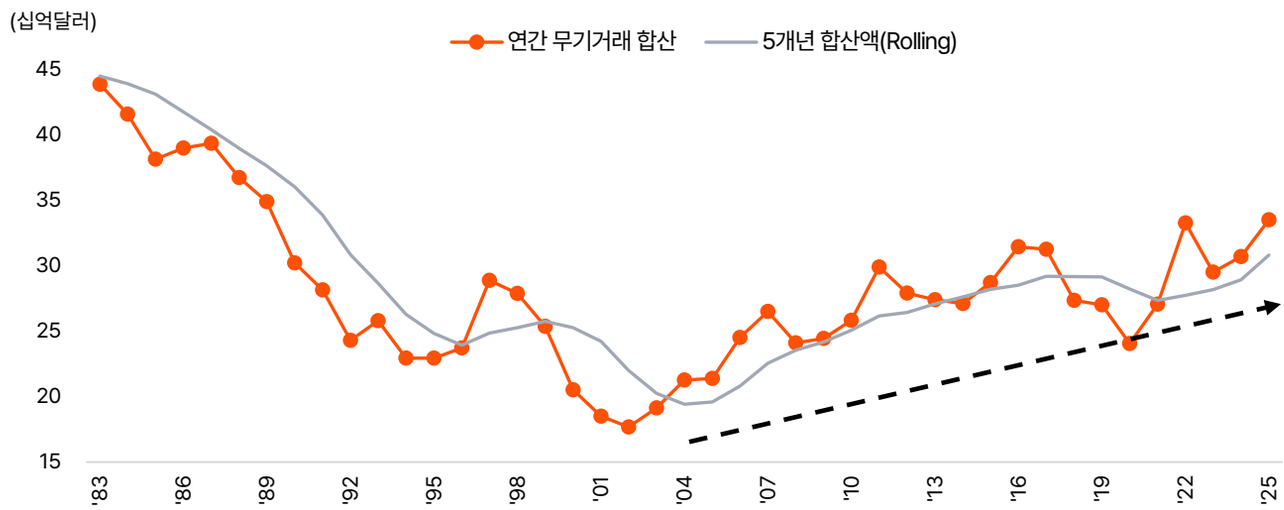
둘째, **아시아 & 오세아니아 지역 무기 수입 큰 폭 감소**이다. 해당지역 무기수입은 최근 5년간 직전 5년 대비 20% 감소하였다. 그 요인은 중국, 한국, 호주 등이 방위비를 증가시키며 무기 자급화를 확대함에 따라 수입을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해당기간동안 중국의 무기 수입이 72% 감소하였으며 호주와 한국은 각각 38%, 54% 감소하였다.

[도표 12] 최근 5개년 합산 무기거래액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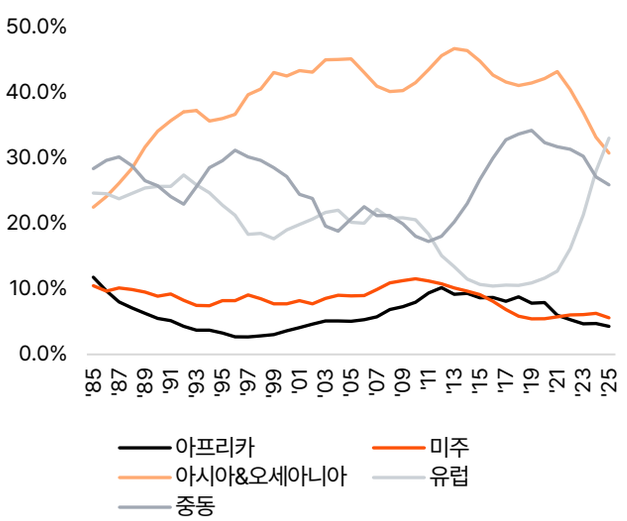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13] 연도별 무기거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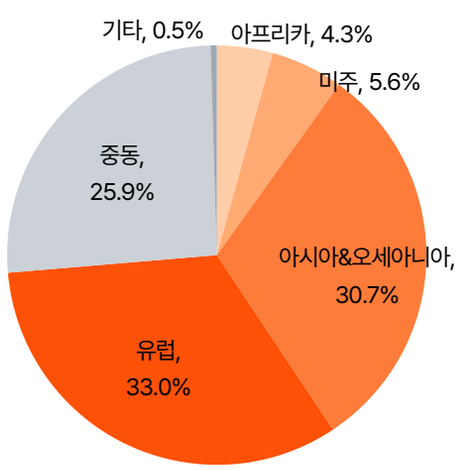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14] 지역별 무기수입액 비중 변화 (5개년 합산 Rolling 기준)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15] '21~'25년 지역별 무기 수입액 비중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무기 수출 부문: 미국,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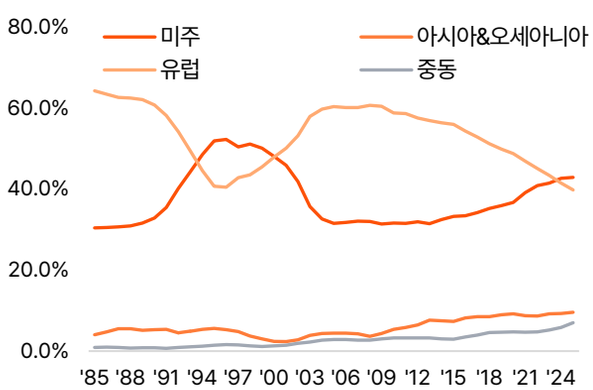
미국, 무기 수출 점유율 상승

무기 수출에서의 뚜렷한 특징은 첫째, **미국은 무기 공급국으로서 위상 강화**이다. 최근 5년('21년~'25년) 미국 수출액은 직전 5년('16년~'20년) 대비 27% 증가, 수출 점유율은 직전 5년('16~'20년) 35.%에서 최근 5년 합산 기준 42%로 무기 수출 점유율이 확대되었다.

무기 수출 대상국에는 직전 5년과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던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이 하락하고 유럽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사우디, 호주 등은 수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러-우 전쟁에 따른 무기 수요 급증 및 무기 재고 확충에 따라 미국의 무기 수출 주력 지역이 유럽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는 중동의 수입국 다변화와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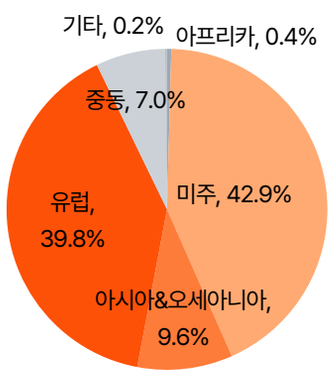
둘째,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들의 수출 증가세**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들 대부분은 유럽 역내로 향했으며 중동으로의 수출도 확대되었다. 아시아는 무기수출 5위인 중국의 수출이 직전 5년 대비 11% 증가,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이 동기간 24% 증가하며 신흥강자로 떠올랐다.

[도표 16] 지역별 무기 수출액 비중 추이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17] '21~'25년 지역별 무기 수출액 비중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18] 미국의 무기 수출 대상국 순위 비교 ('21~'25 Vs. '16~'20)

2021~2025					
순위	국가	비중	순위	국가	비중
1	사우디아라비아	12.3%	11	노르웨이	3.2%
2	우크라이나	9.4%	12	이스라엘	3.1%
3	일본	8.9%	13	이탈리아	2.8%
4	카타르	7.4%	14	UAE	2.7%
5	호주	5.6%	15	바레인	2.5%
6	영국	4.4%	16	대만	1.9%
7	쿠웨이트	4.2%	17	덴마크	1.9%
8	대한민국	3.9%	18	인도	1.6%
9	네덜란드	3.8%	19	독일	1.5%
10	폴란드	3.8%	20	모로코	1.5%

2016~2020					
순위	국가	비중	순위	국가	비중
1	사우디아라비아	22.3%	11	이라크	2.8%
2	호주	9.5%	12	이탈리아	2.7%
3	대한민국	7.0%	13	네덜란드	2.3%
4	일본	6.6%	14	아프가니스탄	2.3%
5	UAE	6.4%	15	모로코	2.2%
6	이스라엘	4.7%	16	대만	1.7%
7	카타르	4.3%	17	이집트	1.5%
8	영국	3.9%	18	싱가포르	1.4%
9	인도	3.0%	19	캐나다	1.2%
10	노르웨이	2.9%	20	튀르키예	1.1%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2.3 한국 방위산업 위치와 수출 경쟁력

한국의 수출 증가

한국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무기 수출의 신흥강자로 부각되고 있다. '21~'25년 합산 기준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3.0%,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직전 5개년 합산액 대비 24% 증가, 점유율은 0.4%p 상승하였다. 2025년에는 무기 수출 4위를 기록하며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p. 34 「Appendix 1-② 무기 수출국가 순위」 참조)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등 주요 전차, 장갑차, 유도무기 등의 수출 호조로 국내 4대 방산기업의 글로벌 순위도 '23년도에 비해 '24년도에 상향되었다. 한화그룹은 24위에서 21위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73위에서 60위로, 현대로템도 84위에서 80위로 상승하였다. (p.35 「Appendix1-④ 글로벌 방산기업 순위」 참조)

한국 방산 경쟁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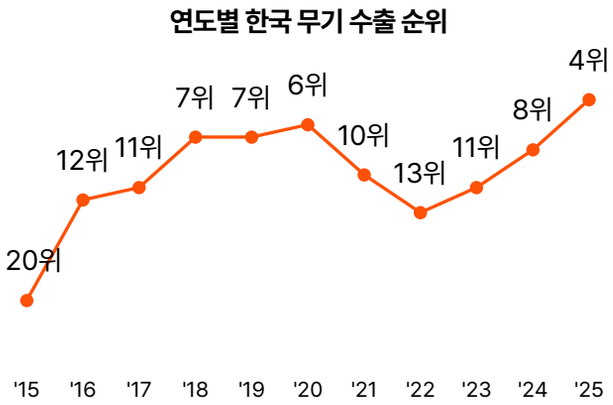
① 압도적인 가성비와 '납기 준수(Delivery)' 능력: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냉전 종식 이후 생산 인프라를 축소하여, 최근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러-우 전쟁을 계기로 본격 부각되었고, 금번 미-이란 전쟁에서도 고성능, 신속 조달 가능한 무기로 부각되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주문시 초도물량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인도**받았다**.** 가격 역시 서방의 무기 대비 70~80% 수준이다. 금번 96%의 높은 요격률을 보여준 천궁-II는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과 비교되는 중고도 유도무기로 가격은 PAC-3의 1/3 수준이다. 이 가운데 미국은 미-이란 전쟁으로 인해 재고가 고갈되며 수출 납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천궁-II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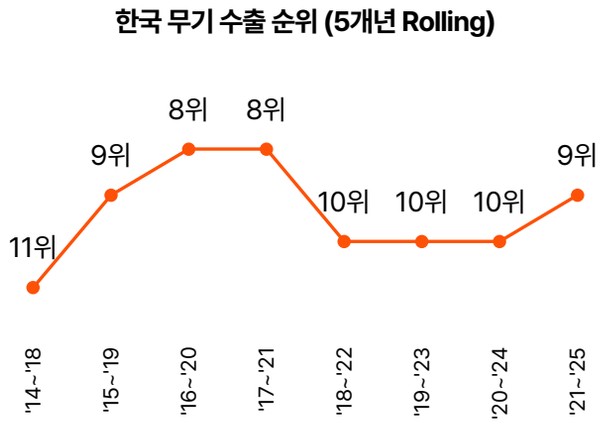
② 미국 · 나토(NATO) 체계와의 높은 호환성: 한국 무기는 한미 연합 작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미국 및 나토의 규격(NATO Standard)과 호환이 용이하다. 155mm 포탄 공유는 물론, 전술 데이터링크와 사격통제시스템이 서방 시스템과 연동된다. 무기 체계를 전면 교체하기 부담스러운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의 대체재 및 보완재로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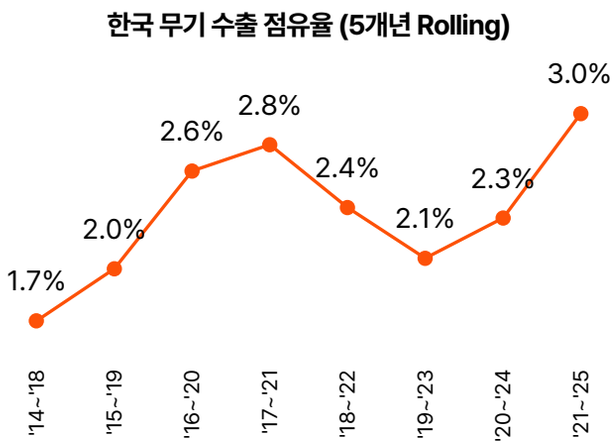
③ 실전형 미사일 · 방공 기술: 천궁-II(M-SAM)의 사우디아라비아·UAE 대규모 수출, 그리고 L-SAM 개발 등으로 한국 방공 미사일 기술은 입증되었다.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들로, 드론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는 중동 국가들에게는 필수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기술 이전 및 현지 MRO 패키지: 미국이나 일부 유럽 강대국 대비 현지 합작 법인 설립, 기술 이전, 현지 MRO(유지 · 보수 · 정비) 허브 구축과 같은 패키지 수출에 적극적이다. 자체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겐 유리한 수출 경쟁력이다.

[도표 19] 한국 무기 수출 순위 및 점유율 추이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20] 국내 방산기업 글로벌 순위

기업	2022	2023	2024
한화그룹	46	24	21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65	73	60
한국항공우주	71	54	70
현대로템	103	84	80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3

한국 방위산업의 주력 수출 지역

3.1 한국 방위산업 주력 수출 무대: 유럽, 중동, 북미

글로벌 방위비 확대 및 무기거래 트렌드, 그리고 이란 전쟁에서 나타난 전쟁의 양상으로 볼 때 한국 방위산업 수출이 주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유럽

유럽은 가장 빠르게 방위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무기 수입도 적극적 추진 중이다. 미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 촉구 뿐만 아니라 러시아 위협에 대해 독자 대응 능력 제고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NATO 내에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어, 러시아 위협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 더욱이 그동안 위축되었던 방위산업 생산 기반은 러-우 전쟁을 계기로 확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역부족으로 무기수입과 생산기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국내 방산기업의 주력 수출 지역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에서 풍부한 수주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무기 수요 확대에 따라 한국 방산 수출이 유럽내 타국가들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유럽은 장기적인 방위력 강화를 위해 역내 생산 기반 강화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국내 방산업체들도 현지 공급망 확대 등 현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폴란드 잠수함 사업(오르카 프로젝트)과 루마니아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IFV) 사업을 수주전에서 각각 스웨덴 사브, 독일 라인메탈에 고배를 마셨던 수주 실패 사례에서 보듯 유럽의 역내방산 우선 구매 기조가 강화에 대해 현지화 뿐만 아니라 공동생산,정비 및 후속 지원 체계 구축 등 장기적 파트너 십 전략 강화를 통해 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② 중동

2010년대 중후반 무기 수입 사이클 이후에 수입이 다소 위축되었으나, 국방력 강화 기조, 잦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무기 재고 감소, 특히 미-이란 전쟁으로 다층 방공망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며 고성능이 입증되고 가성비와 신속 납기능력을 갖춘 한국의 방공무기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무기 수입과 함께 생산시설, 기술이전, 유지관리 보수 등 필요, 국가 안보, 에너지 시설 및 민간 인프라 등 보호 차원에서도 국가 방어를 위한 무기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북미

✓ **미국:** 미국은 자국 방어 및 미국내 방산 재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동맹국의 방산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2026 국가방위전략 NDS 및 미 국방부 예산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이란 전쟁에서 고가 정밀 요격 무기 소진으로 인한 무기 재고 채움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군력 증강 등 한국 방산의 기회 요인이 풍부하다.

✓ **캐나다**: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는 60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단순 일회성 잠수함 발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프로젝트는 잠수함 수출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등 30년간의 대형 장기 계약 수출 건으로 해양 잠수함 분야에서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기회이다. 함정분야에서의 의미있는 수주가 나타난다면 향후 해군력을 확대하려는 글로벌 국가들에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단순 수주를 넘어 캐나다 및 북미, NATO의 해군 공급망에 참여하게 되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도표 21] 한국 무기 수출 주력 지역 및 방위산업의 기회요인

지역	주요 특징	한국 방산기업 기회
유럽	• 러시아 위협과 미국 방위비 부담 압박으로 방위비 확대 및 무기 수입 급증 • 자체 방위산업 기반 확충하고 있으나 미군의 유럽내 역할 축소에 따른 자체 방위능력 부족 • 무기 수입과 현지 공급망 확대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전망	• 기존 주력 수출 지역으로 지속 확대 • 주요 수입국 이외의 역내 주변국으로 수요 확산 가능 • 장기적으로 생산 기반 강화 방향 – 현지 생산/공급망 구축 필요성 증가
중동	• 잦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무기 재고 감소 • 미-이란 전쟁으로 다층 방공망 필요성 고조 • 에너지/인프라 보호 필요성 확대	• 방공체계(다층 방어) 수출 기회 확대 • 단순 수출 → 기술이전 · 생산 · MRO 포함 패키지 수요 증가
북미	**① 미국** • 미- 이란전쟁 무기 재고 감소, 미국 방위산업 재건 주력, 동맹국 방산 역량 활용 의지표명으로 수혜 예상 **② 캐나다: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 • 캐나다 재래식 초계잠수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로 약 30년간 60조원의 대형 프로젝트 • 국내 주요 산업군과 캐나다의 산업 협력 기회 • 기술력 및 작전 환경의 난이도 증명: 장거리 항해 능력과 거친 해상 환경을 견디는 강력한 내항성 요구. 북해 운항성에 대한 증명 가능 • 글로벌 안보 협력 강화: 북미 및 유럽 방산·안보 생태계에 진입하여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 크게 격상	• 미국: 미국 방산 재건, 무기 재고 확충 기조, 동맹국 생산 분업 전략에 따른 수출 기회 확대 • 캐나다:캐나다- 한국 대규모 연관산업 협력 강화, 잠수함, 함정 등 해양방산 레퍼런스 확보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3.2 유럽의 재무장

유럽, 구조적 방위비 증가

앞서 살펴본 최근 SIPRI 방위비 지출 및 무기 거래 데이터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은 2025년 글로벌 방위비 증가(미국 제외 글로벌 국방비 증가율 9.2%, 유럽 지역 +14.1%) 및 최근 5개년 무기거래액 증가(글로벌 9.2%, 유럽 무기수입액 +209.9%)를 견인한 1등 공신이다. 이러한 결과는 러-우전쟁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러-우 전쟁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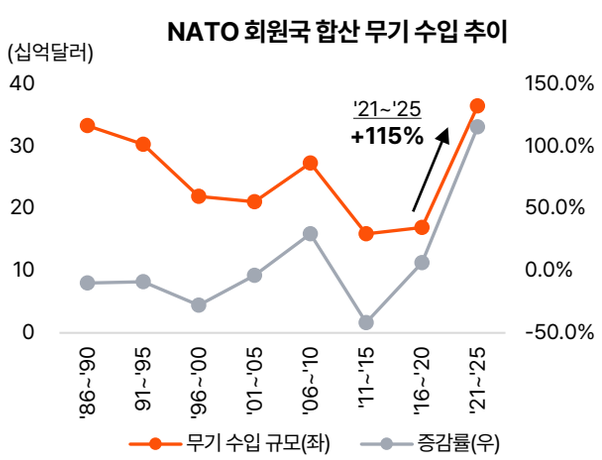
유럽의 방위비의 구조적 가 이어지는 이유는 **첫째, 단기적으로 전쟁에 따른 무기 재고 확충**이 필요하다. 4년이 넘게 이어지는 러-우 전쟁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군사 지원이 지난해부터 부재하다. 또한 이란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무기고가 바닥나 수출 물량마저 납기가 연기되고 있다.

러-우 전쟁에서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기로 한 무기의 약 80% 가까이 인도되었는데, 전쟁초반에는 보유재고에서 약 60%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기존 재고가 아닌 신규 무기 조달 비중이 '24년도에 60%에 가까이 이르렀다. 따라서 유럽의 무기수입은 재고 축적 차원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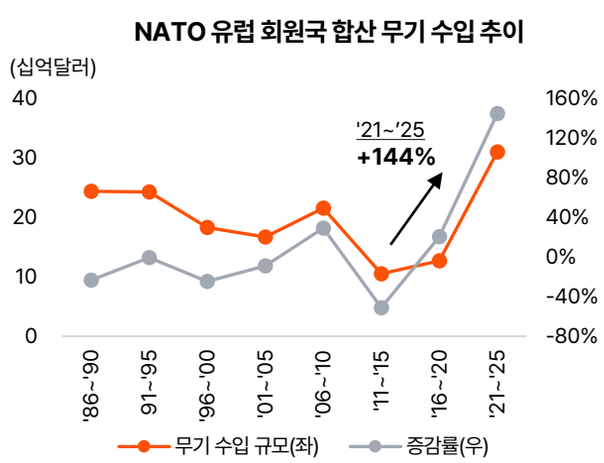
둘째, 미국이 유럽, 아시아, 중동 등의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을 담은 2026년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관련 핵심 추진분야 중 하나로 유럽, 중동 등 동맹국들이 자국방어에 주도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이 보다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과 같은 맥락으로 NATO는 2035년까지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중을 5%까지 상향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25년 기준 유럽 NATO 국가들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은 2.3%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기 수입과 함께 유럽내 생산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도표 22] NATO 회원국과 NATO 유럽 회원국의 무기 수입 추이 급증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러시아 위협에 대한 독자 방어능력 강화

셋째, 러시아의 지속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NATO 내 미국의 역할 축소에 따른 독자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부담 축소 및 NATO 탈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다. 현실화 여부를 떠나 유럽내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유럽은 미국 없는 NATO 및 유럽에 대한 준비 태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내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단순히 미군 주둔의 비용이나 무기의 대체 뿐만 아니라 국방산업의 기반 자체를 확립해야 한다.

IISS(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2025년 5월 보고서 「Defending Europe Without the United States: Costs and Consequences」에서 미군 철수시 유럽에 필요한 비용과 방위산업에 대한 필요 사항을 평가하였다. IISS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군의 병력 철수와 기존 무기 를 신규 무기와 플랫폼으로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약 2,260억 달러~3,444억 달러, 병력은 128,0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기의 수명주기동안 신규무기의 통상적인 유지 비용이 구매 비용의 2배가 든다고 가정하면 요구되는 비용은 급증한다. 여기에 병력 대체 비용, 기지 인프라, 우주 사이버 전략정보, 핵전력 대체, 각종 운용 및 유지비용 등을 포함하면 약 1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26년 미국의 국방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2025년에 러-우 전쟁이 종전, 2025년에 미국이 유럽에서 철수 시작을 가정).

문제는 이러한 미군의 대체는 유럽의 국방 예산 증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인력, 생산기지, 공급망 등 국방산업의 기반이 갖추어져야 이루어질 수 있다. IISS 보고서는 향후 10년 내 유럽 방위산업이 미국의 역량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재 유럽 지상 무기 부문에서는 무기 조달 및 생산 기반이 갖추어지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군 및 항공 우주 상당 부분에서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무기 체계 조달이나 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의 격차는 해상 및 항공 우주 영역에서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로켓포, 방공 및 미사일방어, 공중/지상 발사 정밀타격체계, 전자전, 지휘통제 시스템 등과 같은 분야를 빠르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조달이 여전히 필요함을 강조했다.

[도표 23] 유럽에 배치된 미군의 기존 무기 및 플랫폼 대체시 영역별 비용 (십억달러)

영역	최저	최고
지상	51.2	93.7
해상	86.68	125.48
공중	88.17	125.26
합계	**226.05**	**34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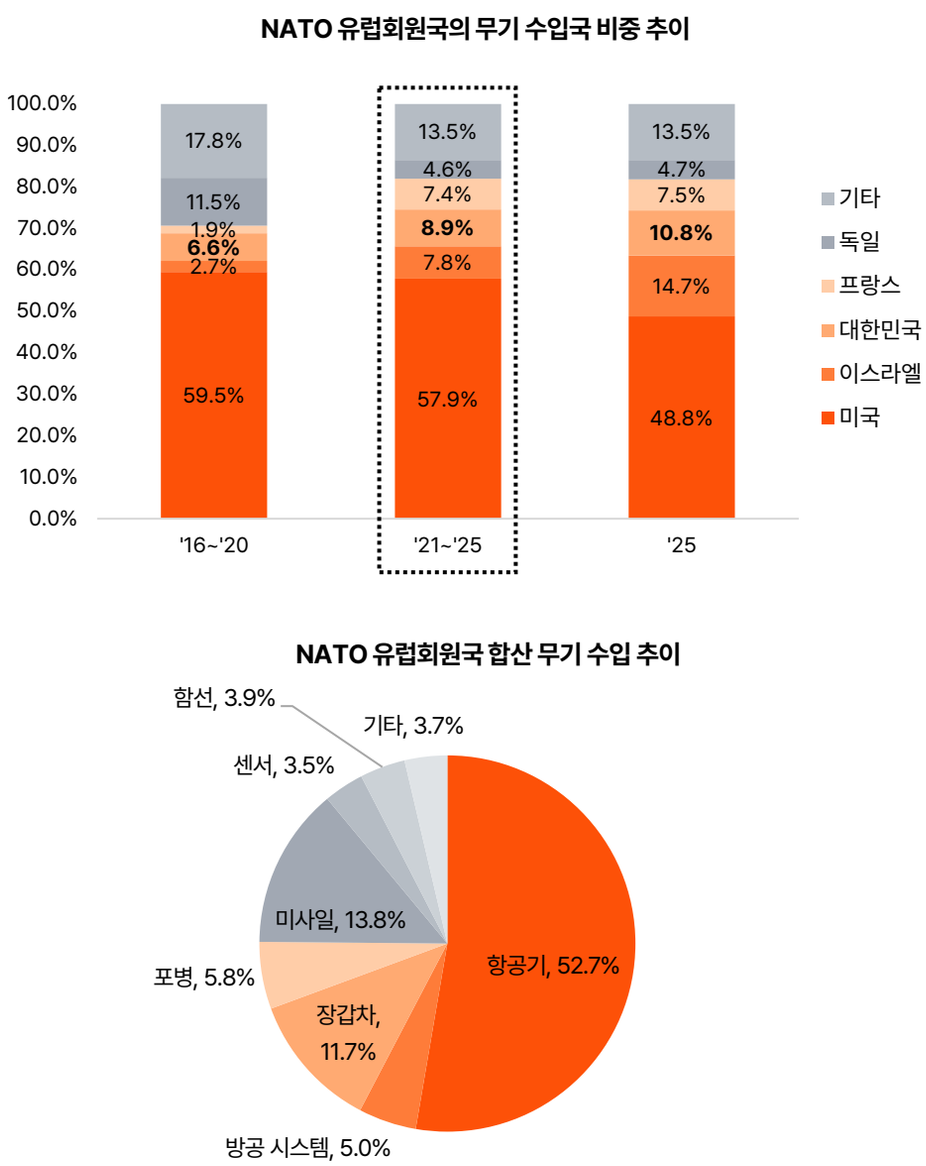
자료: IISS, Military Balance+, 각국 예산, 언론 보도 등

한국의 기회요인

유럽은 한국 방산기업의 주력 수출 무대이다. '21~'25년 유럽 NATO 회원국의 무기 수입국 2위가 한국이다. 미국에 대한 무기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높지만 한국과 이스라엘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K-9 자주포와 K-2전차에 이어 방공무기 수출도 확대하고 있으며 단순 무기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지화에도 나서고 있다.

유럽은 전방위적으로 국방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ReArm Europe 정책 내 EDIP, SAFE와 같은 보조금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럽 역내 공급망에 포함되는 것이 유리하다. 역내 공동 조달 강화에 따라 유럽산 부품 65% 이상 사용해야 보조금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기업들은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지에 유럽법인 혹은 사무소, 조인트 벤처 설립 및 생산 시설 구축 등으로 현지화 공략에 나서고 있다. (P. 36~37 Appendix2 &3 참조)

[도표 24] NATO 유럽회원국의 무기 수입 형태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3.3 중동의 부각

신규 수출 무대로 부각되는 중동

중동의 무기 수요 증가 전망

중동은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역사, 정치, 종교, 민족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갈등이 상존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GDP대비 방위비 비중이 높은데, 대체로 그 비중은 5~8%대로 러시아와 비슷하며 유럽국가들 대비 2배 이상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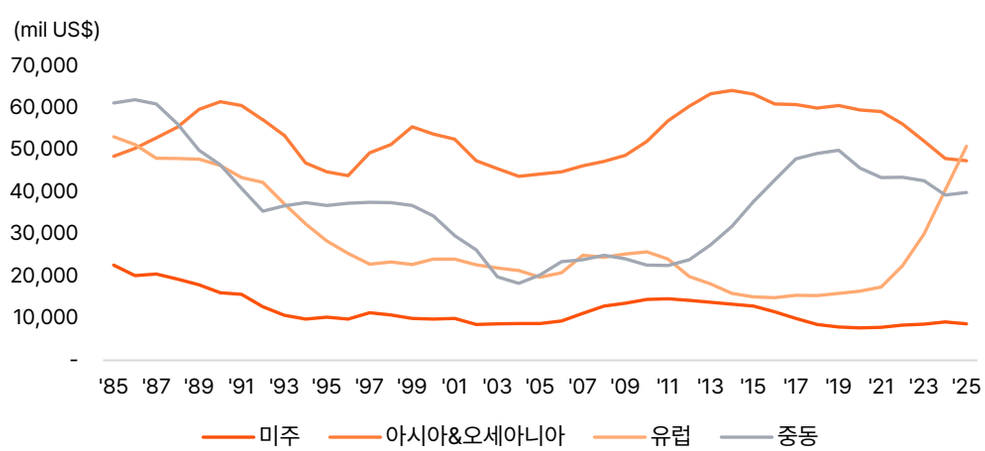
중동 상시 분쟁 돌입으로 무기 수요 지속 전망

중동은 2026년 2월 미&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인해 또 다시 무력 충돌의 중심에 서서 글로벌 경제, 정치,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중동내에서도 에너지 운송 경로의 중요한 병목지점으로 지목되는 호르무즈해협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 해상운송, 안보질서 측면에서 요충지로 전략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또한 중동 지역 분쟁은 중동 내부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외부의 개입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해왔다. 금번 미-이란 전쟁도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이란간 전쟁이지만, 미국-중국/러시아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이 이란에 레이더 및 민간 위성 제공하고 중국 그림자 함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사례나 러시아가 중동내 미군 기지 위치를 지원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미-이란 전쟁은 실질적으로는 주변 강대국간의 전쟁인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상시 분쟁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이란 전쟁이 종전되더라도 중동지역 무기 수입은 증가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최근 '21~'25년 합산 무기수입은 직전 5년('16~'20년) 대비 12.5% 감소하였고, 미-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라 무기 재고가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전쟁으로 인해 걸프만 국가의 핵심 에너지 시설 및 민간 시설 파괴로 자국 안보 강화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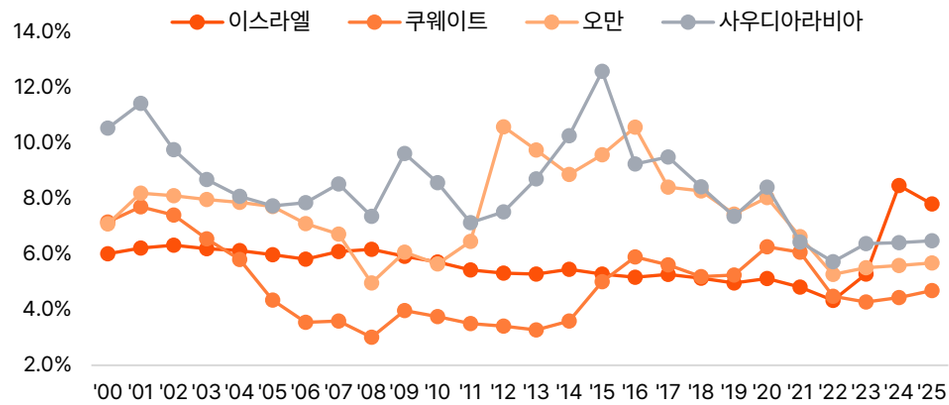
특히 고고도 체계 중심에서 벗어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대량의 저가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 고고도/중고도/하층 방공 체계 등 다층 방공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표 25] 지역별 무기수출액비중 변화 (5개년 합산 Rolling 기준)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26] 중동 주요국가의 GDP 대비 방위비 비중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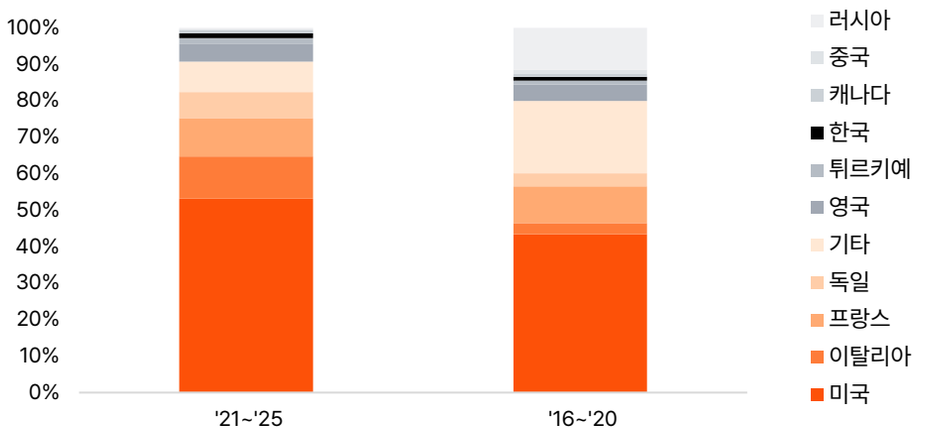
중동은 자체 생산 능력보다는 무기의 수입의존도가 높다. 수입 국가별로는 미국 비중이 최근 5년간 54%로 가장 높으며 이탈리아 11.7%, 프랑스 10.7%, 독일이 7.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중동은 미국 무기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21~'25년에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 비중은 1.3%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미-이란 전쟁을 통해서 다층 방공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 소진으로 공급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천궁-II의 높은 요격율이 검증되며 천궁-II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궁-II는 이미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약 12조원 이상 규모로 수출이 되었으며, 추후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지에서도 천궁-II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천궁-II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비 1/3 가격으로 빠른 납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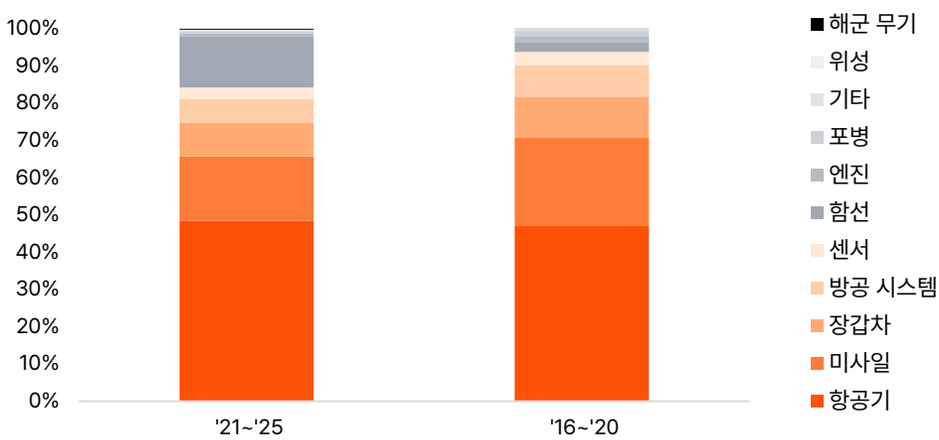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도 지상전보다 해양봉쇄, 상선 공격,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민간 시설 및 에너지시설 타격 등 주로 해양이나 공중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미-이란 전쟁에서 지상전이 어려운 이유는 5만명 수준의 미군으로 지상전을 치르기엔 병력 규모의 한계가 있고,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고원과 사막 지형이 복합적으로 분포해 소수 병력으로 승리하기는 어려운 지리·지형적 부담이 있다. 또한 내부 무장세력의 반란이나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해양, 혹은 공중 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무기 수입 또한 항공기와 미사일 등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표 27] 중동지역의 주요 무기 수입국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28] 중동지역의 주요 수입 무기 비중



자료: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3.4 북미 시장의 기회

① 미국

미국 방산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고 자국 우선주의가 강한 시장이다. 그러나 이란전쟁 이후 정밀 요격무기의 급격한 고갈, 그리고 방위산업 강화 정책, 해군력 강화 등을 고려하면 국내 방산시장에서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 미국 무기 공급 능력 역부족, ② 미 해군력 강화, ③ 동맹국 역할 강조 등의 환경은 한국 방위산업의 미국 수출 확대 기회 요인

첫째, 미국의 탄약 부족 문제, 정밀 유도무기의 소모에 따른 적기 무기 공급 능력 부족이다. 미국은 첨단 하이테크 무기 개발에 집중하느라 대량의 탄약과 미사일 제조 역량은 약화되었다. 반면 한국은 대량 양산 역량과 적기 납품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러-우전쟁에서부터 재래식 탄약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이란전쟁에서 비대칭 소모전이 이어지면서 미국이 고가의 패트리엇이나 토마호크 등 첨단 미사일 재고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성비 높고 성능이 검증된 한국형 유도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LIG넥스원의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등은 미 해군의 연안 방어 및 드론 요격용으로 미국 해외비교시험(FCT)을 통과하며 본토 진입 가능성을 극대하게 높이고 있다. 이러한 틈새에서 한국 방산기업은 미국 시장의 진출 기회를 포착할수 있다.

둘째 한 미 해군력 강화: 미군의 무기 정비 및 보충 수요가 폭발하면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물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한국 조선사들이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본격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미국의 무기생산국 위상 회복을 위한 동맹국 활용에 따른 수례, 즉 **'방산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수혜**이다. 미국은 글로벌 경찰 역할로 무기 생산 공급 역할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 생산을 분담하는 체제로 전환 중이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미국 및 NATO 시스템과 완벽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갖추고 있어, 미군이 가져다 쓰거나 동맹국에 우회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다. 이에 따라 제조역량 및 납기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방산기업에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도표 29] 2026 미국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핵심 전략의 주요 내용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	미국 방위 산업 기반 강화
• 국경 보안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시 • 서반구의 주요 지형 확보(알래스카, 그린란드 등) • 미국의 영공 방어(골든돔), 핵무기 현대화, 사이버 위협 억제	• 중국과 교류하면서도 어느 한 국가의 지배를 막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 유지 • 여기에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 구축하고 동맹국과 협력을 포함	• 유럽, 중동, 한반도의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장려 • 미국은 제한적 지원 제공. 모범 동맹국과는 협력	• 세계 최고의 무기 생산국으로서 위상 회복→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도입과 규제 제거를 실행 과제로 제시 • 동맹국·파트너 국가들의 생산 능력 활용하여 미국 수요 충족

자료: 미 전쟁부,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30] 미국의 무기 재고소진 현황

구분	내용
전쟁 기간	초반 약 5주간 단기 고강도 소모
주요 무기 소모율	• 토마호크: 27% • JASSM: 36% • SM-6: 약 33% • SM-3: 약 50% • 패트리어트: 약 67% • THAAD: 80% 이상
문제	• 저가 드론(2~5만 달러) vs 고가 요격미사일(수백만 달러) → 비효율적 '비대칭 소모전' • 미 연구소, 핵심 무기들 30~80% 소모, 6년치 비축부담 심화 • 동시다발 분쟁 때 심각한 '탄약 격차' 예상

자료: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캐나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해양 분야의 레퍼런스 확보 및 NATO 공급망 진입 가능

캐나다는 방산 시장 규모나 추후 확장성 측면에서 캐나다 단독 방산 시장 보다는 북미 및 NA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잠수함·함선 등 해양 방산 분야의 레퍼런스를 쌓는 기회이자 이를 바탕으로 타 국가로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연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한국의 방산 기업 및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이다.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의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고(2035년까지) 추후 유지·보수·정비(MRO: Maintenance, Repair, Operation)까지 포함한다. 본 프로젝트는 단순 무기 획득으로만 약 20~30조원, MRO 포함 60조원 이상의 규모의 장기 초대형 사업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대서양·태평양·북극을 모두 포괄하는 장거리·장기체공 수중전력과 북극 운용 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현재 최종 수주 경쟁자는 한국의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로 압축되었다. 캐나다는 단순 잠수함 구매가 아닌 캐나다형 잠수함 및 방산 생태 구축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수주의 핵심 변수는 순수 성능 비교만으로 승부가 나기보다는 북극 작전 적합성, 현지 산업화, 동맹정치, 인도 일정의 신뢰도 즉 납기력, 주권적 MRO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당초 잠수함의 성능과 가격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캐나다 정부가 '자국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중시하며 방산 수주전이 거대한 경제 패키지 딜로 변모하며 국가 차원의 경제 동맹 프로젝트로 격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본 프로젝트는 60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해양 잠수함 분야에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함정분야에서 의미있는 수주가 나타난다면 향후 해군력을 확대하려는 글로벌 국가들에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단순 수주를 넘어 캐나다 및 북미, NATO의 해군 공급망에 참여하게 되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상대적으로 함정, 그리고 지상무기(K2전차, K9자주포), 유도무기(천궁-II) 뿐만 아니라 해양 잠수함 분야에서의 위상 강화 및 추후 타 국가들로부터의 수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시 한국은 북미와 NATO 공급망에 진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향후 해군, 잠수함을 확대하려는 국가들로부터 수주확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31]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 개요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 사업명: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 추진 목적: 캐나다 해군의 노후화된 빅토리아급(Victoria-class) 디젤 잠수함 4척 대체, 북극해 영유권 강화와 3개 바다(태평양·대서양·북극해)의 장기 작전 능력 확보. • 현재 진행 단계: '25년 8월, 한국과 독일로 적격 후보 압축. 캐나다 국방부 심사를 거쳐 '26년 여름(이르면 6~7월 중) 최종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 예정
주요 내용 및 규모	• 도입 규모: 최대 12척 (재래식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 사업 예산: 단순 획득 비용 약 20조~30조원, MRO 포함 총 수명주기 비용 최대 60조~80조원 • 인도 목표: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첫 번째 잠수함은 2035년까지 인도
캐나다 요구 조건 및 수주의 핵심 변수	• 북극해 운용 및 빙해 부상 능력: 북극해의 얼음 밑 기동 및 부상 가능한 선체 강도와 장기 잠항 기술 • 상호 운용성(미국 전투체계 탑재): 미국 및 NATO 연합 작전을 위해 미국 전투체계와 미국산 무장 연동 • 독자적 MRO 인프라 구축: 현지 조선소 및 방산업체에 기술 이전, 캐나다 내 독자 정비 공급망 구축 요구 • 적기 납기 능력: 최근 글로벌 안보 불안으로 인해 2035년 기한 내에 실제 인도가능한 양산 능력 • 캐나다 전반의 경제적 혜택 제공

자료: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도표 32] 한국Vs. 독일 수주 경쟁 비교

구분	한국 (한화오션·HD현대)	독일 (TKMS)
플랫폼	• KSS-III (장보고-III)	• Type 212CD급
정부지원	• 대통령실 · 국방부 ·해군 · 방사청 • 도산안창호함(KSS-III)이 태평양 횡단을 마치고 캐나다 에스퀴말트 해군기지에 입항. 에스퀴말트는 캐나다 태평양 함대의 핵심 거점	• 독일 정부 • 절충교역 확대: 자국 해군 차기 전투관리체계(CMS)를 캐나다 제품으로 전량 도입 발표(도입규모: 10억 달러, 약 1.47조원)
장점	• KSS-III 기반 3,000톤급 플랫폼, 높은 재래식 잠수함 기술력.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을 상용화해 장기 잠항 능력 입증** • 빠른 인도 일정(2035년까지 4척 인도 약속), 대형 조선소 다수 보유로 납기·생산 여력 • **가격경쟁력, 가성비** • 현대차·수소 패키지, 포스코·배터리·자동차 등과 연계 가능한 대형 산업·자원 패키지	• 유럽·NATO 국가 대상 **잠수함 공급 레퍼런스 풍부** (노르웨이·이탈리아 등). • 유럽에서 검증된 설계(AIGIS, 212/214 계열)를 기반으로 북극·대서양 작전 경험 보유 • NATO 운용경험: 정치·외교 네트워크 측면에서 NATO 파트너로서 안정감 • 현지화 및 주요산업 협력 : 북극함대 기지 현대화 참여, 일정 비율 캐나다 현지 생산 보장, 캐나다 MRO(정비) 생태계 구축, 캐나다 핵심광물·에너지·배터리 협력
단점	• 북극·고위도 운용 실증 경험 부족, 추가 설계 변경·시험이 필요 • NATO 비회원, 정치·동맹 측면에서 TKMS 대비 약세 • 요구 조건 변경·설계 수정에 따른 리스크 비용·일정 리스크가 존재	• 유럽 조선소 수주 적체, 인도 지연 리스크에 대한 우려 • 한국 대비 비싼 건조 비용 및 경직된 가격 구조 • 대규모 민수·자원·수소 패키지 측면에서 한국 대비 다소 제한적

자료: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4

결론

4.1 시사점

최근 발표된 SIPRI의 무기거래 트렌드와 전세계 방위비 지출의 흐름, 그리고 지난 4년 간의 러-우 전쟁과 장기화되고 있는 미-이란 전쟁 등 글로벌 무력 충돌의 흐름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① 글로벌 방위산업 구조적 성장 지속

글로벌 분쟁 빈도 증가 및 분쟁의 상시화, 전세계적 군비 경쟁 강화로 글로벌 방위산업 성장세는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2025년도 전세계 방위비가 11년 연속 증가 및 미국 이외 국가들의 방위비가 전년대비 9.2%로 급증하였다. 미국의 '27년도 국방 예산도 2차대전 이후 사상 최대로 요청하였고, 유럽은 적극적인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30년 이상 방위비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러시아는 GDP대비 7% 이상을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다.

더욱이 러-우 전쟁 장기화, 미-이란 전쟁 지속으로 글로벌 무기 재고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미국과 유럽간 결속력 약화 및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독자 방위 강조 등과 같은 흐름은 세계 전반의 군비경쟁 심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방위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뒷받침 한다.

② 지속되는 무력분쟁 및 분쟁의 상시화에 따라 자국 방위산업 기반 강화

글로벌 무력분쟁이 지속되고 저강도 분쟁 발생이 잦아지면서 단순 무기 수입이 아니라 자체적인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상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 각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자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은 방위산업 생산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공급망을 확충하고 있고, 중동은 무기 수입국 다변화 및 자체 산업 기반 구축, 해군 및 항공, 우주 등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역대 최대 방위비 예산을 요청하여 2천조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중국, 호주, 한국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들은 자체 국방력 강화 및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③ 비대칭·저강도 분쟁 지속에 따른 소모성 무기, 다층 방공 시스템 및 다영역 통합작전 중요성 부각

미-이란 전쟁을 통해 드러난 무기 수요의 특징은 소모성무기, 다층 방공망 시스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 휴전중의 국지적 저강도 공격이 지속되고 드론-미사일의 공격이 동시에 오가며 저가 드론, 탄약, 고가의 정밀 요격 미사일이 동시다발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지속되는 공격에 따른 소모성 무기와 고/중/저고도 다층 방공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저강도 충돌 지속으로 소모성무기를 신속하게 조달이 가능해야 하며 가성비와 효율성이 갖추어져야 반복되는 공격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이러한 전쟁의 양상속에서 가성비, 신속성, 효율성이 중시되며 K-방산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4.2 전략적 제언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 및 4대 방산강국으로의 진입은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기계·전자·소재·ICT 등 첨단 제조 및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대형 조립 산업이라는 점, 그리고 후속 군수지원(MRO) 수요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 및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더불어 절충교역을 통해 에너지 자원 확보 및 타 산업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러한 방위산업의 경제적 외교 안보적 효과와 더불어 현 시점에서의 글로벌 방위산업 현황 및 무력분쟁 증가 현상을 고려할 때, 지금은 K-방산의 기회의 시간이라 판단된다.

기조적인 글로벌 방위비 지출 확대 및 무기 거래액 증가, 지속되는 글로벌 무력 분쟁과 전쟁으로 인해 미국, 유럽, 중동 등의 무기 재고 고갈 및 자주국방 필요성과 방위산업 생산기반 확충 움직임에서 국내 방위산업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또 한번의 기회라고 판단된다. 가성비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소모성 무기 및 요격 무기 공급이 가능한 국가로 한국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제언을 제시한다.

①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및 현지화 강화

무기 수요 증가 및 국내 방산기업 수출의 주요 무대인 유럽, 중동 현지의 공급망 강화 및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유럽은 러-우 전쟁 이후 급격한 무기 고갈에 따른 재고 보충 및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EU가 역내 공동 조달 비중 우선 정책 강화가 역외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역내 공동 조달망에 편입을 확대해야 한다. 유럽 현지 부품사 공급망 편입을 위한 생산기지 구축, NATO 규격 맞춤형 현지 MRO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동 국가들의 경우, 미-이란 전쟁을 통해 다층 방공망 시스템 필요성이 확인하였다. 또한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선 기술 이전, 인력교육, 현지 공동 생산 등을 통해 중동 지역 무기 수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② 통합 전력 체계 구축 및 패키지형 수출 모델 확대

무기 판매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형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패키지 형태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글로벌 방산 시장은 다양한 무기체계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통합 전력 체계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 개별 성능 중심의 단순 제조 및 플랫폼 공급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여기서 벗어나, 무기 공급, 소프트웨어, 소모품 제공, 성능개량화, 유지보수, 무기체계운용을 위한 교육 훈련체계, 다른 무기와의 연계까지 고려한 통합 전력 체계 수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기 다른 주체가 만든 각각의 무기가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통합 개발 · 제조 · 판매 · 운용 체계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③ 첨단국방과학기술 R&D 강화 및 민간 기술 신속 도입 필요

AI, 드론, 로봇, 유·무인 복합체계, 장거리 정밀타격, 통합 방공 · 미사일 방어체계, 우주 기반 ISR, 전자전 · 사이버 방어, 지휘통제 통합 플랫폼 등 미래 전장 핵심 영역에 R&D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및 테크 기업과 투자 및 공동 연구 확대, 민간기술의 국방 신속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④ 절충 교역 적극 활용

현지화 및 현지 공급망 강화와 연결하여, 수입국 현지 상황에 맞는 절충 교역을 실시해야 한다. 국내 무기 수출과 함께 국내 무기의 기술이전, MRO 기지 구축, 수출 대상국가가 가지고 있는 강점(유럽과 미국 등의 기초과학, 항공우주기술 등에 강점 보유)과 국내 양산 제조기술을 결합하여 양측의 기술 교환 실시, 혹은 양측의 요구사항의 교환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중동의 경우에는 석유/ 원유 의존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제조 및 첨단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프라 시설, 스마트 시티 등의 복구 및 업그레이드, 친환경에너지, ICT 인프라 기술을 방산 수출과 연계한 패키지 형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⑤ 방산 수출시 방산 기술 유출과 관련한 보안 강화

첨단 국방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무역 안보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고히 해야 한다.

⑥ 인력 · 기술 생태계 조성

AI/소프트웨어, 반도체·센서, 우주 · 위성, 소재 · 배터리 등 A&D 관련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방 수요를 활용한 인력 양성 · R&D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방산 기업 · 대학 · 연구소 간 국방 AI · 디지털 전장 관련 공동 연구 및 민 · 군 겸용 테스트베드와 실증 환경 제공 등을 통해 스타트업 ·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군의 협업이 필요하다.

[Appendix 1] 글로벌 방위산업 관련 주요 데이터

① 국가별 방위비 지출 규모 (단위: 십억달러)

순위	국가	2015	(% of GDP)	2021	(% of GDP)	2025	(% of GDP)	CAGR ('21~'25)	CAGR ('15~'25)
1	미국	838.9	3.5%	933.3	3.4%	929.2	3.1%	-0.1%	1.0%
2	중국	196.1	1.7%	262.6	1.6%	335.0	1.7%	6.3%	5.5%
3	러시아	75.1	4.9%	68.5	3.6%	158.2	7.5%	23.3%	7.7%
4	독일	46.9	1.1%	59.9	1.3%	106.7	2.3%	15.5%	8.6%
5	인도	61.0	2.5%	79.7	2.5%	93.3	2.3%	4.0%	4.3%
6	영국	66.7	2.0%	72.1	2.0%	88.0	2.4%	5.1%	2.8%
7	사우디아라비아	101.5	12.6%	67.4	6.4%	81.5	6.5%	4.9%	-2.2%
8	우크라이나	4.8	3.8%	6.7	3.4%	77.6	39.6%	84.3%	32.0%
9	프랑스	53.4	1.9%	60.5	2.0%	64.5	2.0%	1.6%	1.9%
10	일본	37.2	0.9%	42.3	1.0%	59.5	1.4%	8.9%	4.8%
11	대한민국	36.5	2.4%	47.5	2.6%	48.8	2.6%	0.7%	3.0%
12	이탈리아	25.6	1.2%	37.0	1.6%	45.4	1.9%	5.3%	5.9%
13	이스라엘	19.2	5.3%	23.1	4.8%	43.7	7.8%	17.3%	8.5%
14	폴란드	14.7	2.1%	19.6	2.2%	42.5	4.5%	21.3%	11.2%
15	스페인	18.3	1.3%	21.1	1.4%	37.7	2.1%	15.6%	7.5%
16	캐나다	21.6	1.2%	25.7	1.2%	37.5	1.6%	9.9%	5.7%
17	호주	27.2	1.9%	33.4	2.0%	35.3	1.9%	1.4%	2.6%
18	네덜란드	11.0	1.1%	15.6	1.4%	27.0	2.2%	14.8%	9.4%
19	튀르키예	11.8	1.8%	17.3	1.8%	26.8	1.9%	11.6%	8.6%
20	알제리	12.7	5.6%	11.4	4.9%	24.1	8.8%	20.6%	6.6%
21	브라질	24.5	1.4%	22.9	1.1%	23.6	1.1%	0.8%	-0.4%
22	대만	11.1	1.8%	13.1	1.8%	17.3	2.1%	7.3%	4.6%
23	싱가포르	11.4	3.0%	12.6	2.5%	16.9	3.0%	7.6%	4.1%
24	노르웨이	5.8	1.5%	7.8	1.7%	16.1	3.3%	20.0%	10.7%
25	인도네시아	8.4	0.9%	8.8	0.7%	15.3	1.0%	15.0%	6.2%
26	스웨덴	5.7	1.1%	7.4	1.2%	15.0	2.5%	19.1%	10.1%
27	덴마크	3.9	1.1%	5.4	1.3%	14.1	3.3%	26.9%	13.7%
28	멕시코	7.3	0.5%	11.5	0.7%	13.8	0.7%	4.7%	6.5%
29	콜롬비아	10.3	3.1%	12.3	3.2%	13.7	3.2%	2.9%	3.0%
30	벨기에	5.4	0.9%	6.7	1.0%	13.6	2.0%	19.3%	9.7%
31	파키스탄	9.3	3.2%	12.0	3.4%	11.5	2.9%	-1.1%	2.1%
32	베트남	7.2	2.6%	8.0	2.1%	10.9	2.2%	8.2%	4.2%
33	루마니아	3.5	1.5%	6.4	1.9%	8.8	2.3%	8.5%	9.7%
34	쿠웨이트	7.1	5.0%	9.8	6.1%	7.9	4.7%	-5.2%	1.1%
35	그리스	5.5	2.5%	8.9	3.8%	7.8	3.0%	-3.1%	3.5%
36	핀란드	4.1	1.5%	4.1	1.3%	7.6	2.6%	17.1%	6.5%
37	이란	6.5	2.6%	7.9	2.3%	7.5	2.1%	-1.6%	1.3%
38	스위스	5.3	0.7%	6.0	0.7%	7.2	0.8%	4.3%	3.0%
39	체코	2.9	0.9%	4.8	1.3%	6.5	1.8%	8.0%	8.6%
40	이라크	8.9	5.4%	5.1	2.3%	6.4	2.4%	5.8%	-3.3%
41	필리핀	3.7	1.1%	5.5	1.4%	6.3	1.3%	3.4%	5.6%
42	오만	8.3	9.6%	6.0	6.6%	5.9	5.7%	-0.4%	-3.3%
43	오스트리아	3.5	0.7%	4.6	0.9%	5.9	1.1%	6.2%	5.4%
44	모로코	3.9	3.0%	5.5	3.7%	5.9	3.5%	1.7%	4.2%
45	태국	5.9	1.3%	7.0	1.4%	5.6	1.0%	-5.6%	-0.6%
46	포르투갈	3.7	1.6%	4.1	1.5%	5.5	1.7%	7.7%	4.1%
47	칠레	4.8	1.9%	5.2	1.6%	5.2	1.5%	-0.4%	0.7%
48	아제르바이잔	3.2	5.5%	3.4	4.9%	4.7	6.5%	8.1%	3.8%
49	헝가리	1.4	0.9%	2.8	1.3%	4.6	2.0%	13.5%	12.5%
50	말레이시아	4.6	1.5%	3.6	1.0%	4.5	1.0%	6.1%	0.0%

Source: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무기 수출국가 순위

순위	수출국	글로벌 무기 수출 비중		증감율	수출 상대국 순위					
		'21-'25	'16-'20	(%)	1위	비중	2위	비중	3위	비중
1	미국	42	36	27	사우디아라비아	12	우크라이나	9.4	일본	8.9
2	프랑스	9.8	8.8	21	인도	24	이집트	11	그리스	10
3	러시아	6.8	21	-64	인도	48	중국	13	벨라루스	13
4	독일	5.7	5.4	15	우크라이나	24	이집트	14	이스라엘	10
5	중국	5.6	5.5	11	파키스탄	61	세르비아	6.8	태국	4.7
6	이탈리아	5.1	2.2	157	카타르	26	쿠웨이트	17	인도네시아	12
7	이스라엘	4.4	3.1	56	인도	29	독일	21	미국	7.8
8	영국	3.4	3.3	13	카타르	31	미국	14	우크라이나	13
9	한국	3	2.6	24	폴란드	58	필리핀	18	UAE	9.5
10	스페인	2.3	2.4	6.7	사우디아라비아	28	튀르키예	16	벨기에	12
11	튀르키예	1.8	0.9	122	파키스탄	16	UAE	12	우크라이나	8.4
12	네덜란드	1.2	2.1	-34	우크라이나	23	미국	20	파키스탄	16
13	노르웨이	1	0.2	349	미국	33	우크라이나	22	루마니아	16
14	폴란드	1	~0.05	4 387	우크라이나	94	에스토니아	1.6	스웨덴	1.4
15	스웨덴	0.9	0.6	58	브라질	24	우크라이나	14	파키스탄	12
16	캐나다	0.7	0.4	82	우크라이나	34	사우디아라비아	27	미국	17
17	체코	0.4	0.3	62	우크라이나	69	베트남	14	헝가리	9
18	남아프리카공화국	0.4	0.4	-7.2	아랍에미리트	39	싱가포르	19	콩고민주공화국	9.1
19	덴마크	0.3	~0.05	739	우크라이나	50	아르헨티나	19	노르웨이	7.7
20	스위스	0.3	0.7	-51	스페인	46	덴마크	14	루마니아	12
21	우크라이나	0.3	1	-66	중국	64	인도	23	카타르	5.8
22	호주	0.3	0.6	-44	우크라이나	24	캐나다	23	미국	21
23	벨기에	0.3	0.1	270	사우디아라비아	30	우크라이나	23	캐나다	21
24	브라질	0.3	0.3	-9.3	포르투갈	45	헝가리	26	나이지리아	13
25	이란	0.3	0.1	395	러시아	73	베네수엘라	17	후티 반군	9.1

Source: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③ 무기 수입국가 순위

순위	수입국가	글로벌 무기 수입비중		증감률(%)	수입 상대국 순위					
		'21-'25	'16-'20		제 1위	비중	2위	비중	3위	비중
1	우크라이나	9.7	0.1	11 896	미국	41	독일	14	폴란드	9.4
2	인도	8.2	9.3	-4	러시아	40	프랑스	29	이스라엘	15
3	사우디아라비아	6.8	11	-31	미국	77	스페인	9.5	프랑스	4.6
4	카타르	6.4	3.4	106	미국	48	이탈리아	21	영국	17
5	파키스탄	4.2	2.8	66	중국	80	튀르키예	7	네덜란드	4.6
6	일본	3.9	2.5	76	미국	95	영국	3.4	노르웨이	0.9
7	폴란드	3.6	0.4	852	대한민국	47	미국	44	이탈리아	2.2
8	미국	2.9	2.1	48	영국	17	프랑스	14	이탈리아	13
9	쿠웨이트	2.8	0.3	805	미국	62	이탈리아	31	프랑스	5.7
10	호주	2.8	5	-39	미국	85	스페인	6.5	독일	4
11	아랍에미리트	2.7	3.5	-15	미국	42	프랑스	18	대한민국	10
12	이집트	2.6	5.8	-51	프랑스	39	독일	30	이탈리아	18
13	영국	2.1	2	19	미국	85	이스라엘	8.2	독일	2.7
14	이스라엘	1.9	1.8	12	미국	68	독일	31	이탈리아	1.3
15	네덜란드	1.8	0.9	111	미국	89	루마니아	4.8	스웨덴	2.1
16	대한민국	1.8	4.2	-54	미국	93	영국	3.5	이스라엘	1.8
17	독일	1.7	0.2	914	이스라엘	55	미국	37	스웨덴	2.8
18	인도네시아	1.5	1.7	-4.1	이탈리아	40	미국	16	프랑스	14
19	그리스	1.5	0.4	295	프랑스	68	미국	17	이탈리아	4.4
20	노르웨이	1.4	1.3	17	미국	93	덴마크	1.8	이탈리아	1.7
21	중국	1.3	5.2	-72	러시아	66	우크라이나	15	프랑스	13
22	이탈리아	1.3	1.5	-7.8	미국	93	프랑스	2.6	독일	1.7
23	필리핀	1.2	0.8	73	대한민국	42	이스라엘	20	미국	15
24	튀르키예	1.2	1.5	-9.7	독일	31	스페인	29	이탈리아	19
25	브라질	1.2	0.5	150	프랑스	62	스웨덴	18	이탈리아	8.6
26	싱가포르	1.1	1.6	-27	독일	40	미국	33	이스라엘	12
27	바레인	1	0.1	818	미국	99	튀르키예	0.6	이탈리아	0.6
28	모로코	1	1	12	미국	60	이스라엘	24	프랑스	10
29	덴마크	1	0.2	348	미국	82	이스라엘	6.4	스위스	4.7
30	루마니아	0.9	0.3	190	미국	48	노르웨이	17	네덜란드	15
31	벨기에	0.9	0.1	1141	미국	54	스페인	32	프랑스	7.9
32	벨라루스	0.9	0.5	73	러시아	100	이란	0.1	중국	<0.05
33	알제리	0.9	4.3	-78	러시아	39	중국	27	독일	18
34	대만	0.8	0.6	54	미국	96	이탈리아	1.5	독일	1.4
35	헝가리	0.8	0.1	998	독일	43	미국	16	프랑스	9.9
36	카자흐스탄	0.7	0.9	-14	러시아	83	스페인	7.9	프랑스	3.6
37	세르비아	0.6	0.2	195	중국	61	프랑스	12	러시아	7
38	캐나다	0.6	0.9	-24	미국	32	스페인	26	호주	11
39	스페인	0.6	0.3	101	미국	49	스위스	25	프랑스	9.1
40	태국	0.5	1.2	-53	중국	49	미국	15	이스라엘	9.2

Source: SIPRI, 삼일PwC경영연구원

④ 글로벌 방산기업 순위

24년	23년	Company	국가	2024 방산매출액	2023 방산매출액	전체 매출액 ('24)	방산 매출 비중	방산 매출액 증감률
1	1	Lockheed Martin Corp.	미국	64,650	60,810	71,040	91%	6.3%
2	2	RTX	미국	43,600	40,660	80,740	54%	7.2%
3	3	Northrop Grumman Corp.	미국	37,850	35,570	41,030	92%	6.4%
4	6	BAE Systems	영국	33,790	29,908	35,400	95%	13.0%
5	5	General Dynamics Corp.	미국	33,630	30,200	47,720	70%	11.4%
6	4	Boeing	미국	30,550	31,100	66,520	46%	-1.8%
7	7	Rostec	러시아	27,120	21,680	38,890	70%	25.1%
8	9	AVIC	중국	20,320	20,850	81,290	25%	-2.5%
9	8	CETC	중국	18,920	21,370	55,230	34%	-11.5%
10	11	L3Harris Technologies	미국	16,210	14,760	21,330	76%	9.8%
11	10	NORINCO	중국	13,970	20,560	61,580	23%	-32.1%
12	13	Leonardo	이탈리아	13,830	12,390	19,210	72%	11.6%
13	12	Airbus	범유럽	13,370	12,890	74,890	18%	3.7%
14	15	CSSC	중국	12,330	11,480	49,630	25%	7.4%
15	16	Thales	프랑스	11,800	10,350	22,260	53%	14.0%
16	17	HII	미국	10,280	10,300	11,540	89%	-0.2%
17	14	CASC	중국	10,230	12,350	34,100	30%	-17.2%
18	19	Leidos	미국	9,370	8,730	16,660	56%	7.3%
19	23	Amentum	미국	8,330	7,959	13,860	60%	4.7%
20	26	Rheinmetall	독일	8,240	5,480	10,550	78%	50.4%
21	**24**	**Hanwha Group**	**대한민국**	**7,970**	**5,710**	**64,100**	**12%**	**39.6%**
22	20	Booz Allen Hamilton	미국	7,810	6,900	11,980	65%	13.2%
23	21	Rolls-Royce	영국	7,200	6,290	22,810	32%	14.5%
24	25	CACI International	미국	6,510	5,700	8,630	75%	14.2%
25	27	Elbit Systems	이스라엘	6,280	5,380	6,830	92%	16.7%
26	22	AECC	중국	6,260	5,780	. .	. .	8.3%
27	29	Honeywell International	미국	6,090	5,609	38,500	16%	8.6%
28	35	Saab	스웨덴	5,550	4,360	6,030	92%	27.3%
29	33	Safran	프랑스	5,320	4,510	29,550	18%	18.0%
30	30	MBDA	범유럽	5,260	4,760	5,310	99%	10.5%
31	34	Israel Aerospace Industries	이스라엘	5,190	4,490	6,110	85%	15.6%
32	39	Mitsubishi Heavy Industries	일본	5,030	3,890	33,190	15%	29.3%
33	31	GE Aerospace	미국	4,890	4,710	38,700	13%	3.8%
34	41	Rafael	이스라엘	4,700	3,730	4,800	98%	26.0%
35	36	KBR	미국	4,680	4,230	7,740	60%	10.6%
36	32	Naval Group	프랑스	4,660	4,550	4,710	99%	2.4%
37	-	EDGE Group	UAE	4,660	. .	4,900	95%	N/A
38	28	CSGC	중국	4,580	5,130	44,680	10%	-10.7%
39	37	Babcock International Group	영국	4,570	3,970	6,170	74%	15.1%
40	45	Dassault Aviation Group	프랑스	4,290	3,220	6,740	64%	33.2%
41	38	United Shipbuilding Corp.	러시아	4,110	3,900	4,960	83%	5.4%
42	43	KNDS	범유럽	4,110	3,510	4,110	100%	17.1%
43	40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	미국	3,890	3,870	7,480	52%	0.5%
44	42	Hindustan Aeronautics	인도	3,810	3,710	4,010	95%	2.7%
45	44	V2X	미국	3,760	3,410	4,320	87%	10.3%
46	81	Czechoslovak Group	체코	3,630	1,270	4,340	84%	185.8%
47	52	ASELSAN	튀르키예	3,470	2,440	3,660	95%	42.2%
48	48	Textron	미국	3,290	2,940	13,700	24%	11.9%
49	51	TransDigm Group	미국	3,180	2,570	7,940	40%	23.7%
50	46	NCSIST	대만	3,110	3,220	3,190	97%	-3.4%
…	…	…	…	…	…	…	…	…
60	**73**	**LIG Nex1**	**한국**	**2,400**	**1,770**	**2,400**	**100%**	**35.6%**
70	**54**	**Korea Aerospace Industries**	**한국**	**2,010**	**2,290**	**2,640**	**76%**	**-12.2%**
80	**84**	**Hyundai Rotem**	**한국**	**1,730**	**1,210**	**3,210**	**54%**	**43.0%**

***100위 안에 한국 기업 4개 포함: 한화그룹 21위(←24위←46위), 한국항공우주 70위 (←54위←71위), LIG넥스원(현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60위(←73위←65위), 현대로템 80위 (←84위 ←103위)**

Source: SIPRI
Note: 1. 기업 순위는 회계연도말 기준 무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2023년 순위는 SIPRI 무기 산업 데이터베이스 최신 버전(2025년 12월)의 무기 매출액 업데이트 수치 기준.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이전 SIPRI 간행물에 게시된 순위와 다를 수 있음
2.연도별 비교 용이성을 위해 불변 가격(2024년 기준) 미국 달러로 표시
L3Harris Technologies는 '23년 Aerojet Rocketdyne Holdings, Inc. 인수, 해당 기업은 지난해 55위 기록. '23년 매출에는 인수기업의 5개월분 매출 포함
2. 한화그룹 매출액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대우조선해양 매출액이 포함됨.

[Appendix 2] 유럽 국방 정책

① 유럽 주요 방위산업 정책

정책	주요 내용
방위산업전략 (EDIS; European Defense Industrial Strategy, 24.03)	• 러-우 전쟁 장기화, 미국과의 군사 동맹 약화를 계기로 **EU의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 요구** → **EU집행위, 역내 방위산업을 장기적, 체계적으로 지원** • '30년까지 ① 방산물자의 EU 역내 조달 비중 확대(50%), ② 방위 장비 공동조달 비중 제고(40%), ③ EU 역내 방위 물자 교역 비중 증대(35%) • '유럽 군비 사업 구조(Structure for European Armament Programme, SEAP)'를 통해 방위 장비 개발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단계에 걸쳐 회원국 간 협력 촉진
유럽 재무장 (ReArm Europe, 25.03)	•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한 최소 8000억 유로 규모의 자금 동원 계획 • **'유럽 안보 및 행동(Security and Action for Europe, SAFE)' 프로그램을 신설:** EU 공동예산 1,500억 유로를 담보로 회원국들의 방위 장비 공동조달시 저금리 대출 제공 • **방위 예산 확대, 회원국간 공동조달 촉진, 역내 기업 우대 및 역내산 사용** 제안 • **방위비에 대해 EU 재정준칙 예외 조항 허용**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를 GDP 대비 각각 3%, 60% 이하로 제한에 예외 허용 → 방위비 GDP 대비 1.5% 증액 허용시, 최대 6,500억 유로의 방위 예산 추가 확보 가능 • **7대 우선투자분야** - 주요 투자분야: 항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 및 차세대 전투기 시스템, 드론 및 대드론 시스템, 사이버보안 및 전자전, 탄약 및 포병 시스템에 우선 투자 전망 - 무기체계 업그레이드, 항공 및 우주 분야의 투자도 의미 있는 규모로 확대될 전망
방위 대비태세 옴니버스 (Defence Readiness Omnibus, 25.06)	• **방위 장비 생산 등 신규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와 국방물자 조달 절차 간소화** • 방위 준비 태세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고 향후 4년간 최대 8,000억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즉각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촉진하는 포괄적인 패키지 • 국방 준비 태세를 위한 새로운 **신속 허가 제도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허가 소요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단일 연락 창구를 마련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

Source: EU집행위원회, 한국무역협회,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EU 방위산업 정책(Readiness 2030/ReArm Europe) 관련 프로그램 상세 비교

항목	EDF	EDIP	SAFE
성격	R&D 및 기술개발 지원	산업화·공급망·공동조달 상설 프로그램	대출형 투자 촉진 금융수단
적용기간	2021~2027	2025.12~2027.12	2025~2030
총 예산	€80억	€15억	€1,500억 (대출)
연평균 규모	€11억/년	€5억/년	1회성 (수요기반)
자금 유형	보조금 (Grant)	보조금 (Grant) + 금융수단 (Loan/Guarantee)	대출 (Loan) 최대 45년/10년 유예
현지 생산 및 조달 요건	정량 % 없음 EU/연합국 내 개발 및 지배구조 필수	EU/연합국 생산 비중 65% 이상 & 비연합국 생산비중 35% 미만 최소 2개국 참여	
참여 자격	EU + 연합국(노르웨이 등)	EU + 연합국 + 우크라이나 최소 2개국	EU + EEA + 우크라이나 + 캐나다 + 안보파트너십국 (한국, 일본 등)
대상 분야	방산 R&D 전반 기술·시제품 개발	방산 전 분야 (탄약·유도무기·차량·함정·항공기·센서 등)	Cat 1: 탄약, 포병, 소형드론, 사이버, 군사기동성 Cat 2: 항공미사일방어, AI, 전자전, 우주
현황	진행 중 (2027년 종료 예정)	발효 (2025.12.30) 첫 공모 1Q26~2Q26 예정	발효 (2025.05.29) 8개국 계획 우선 승인 첫 자금집행 2026 초

자료: EU,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Appendix 3] 유럽지역 수주 및 현지화 현황

① 유럽 수주 현황

기업명	수주시점	국가	제품명	규모(십억원)	예상 수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2.08	폴란드	K9 자주포(1차)	3,205	K-9자주포: 스웨덴 천무: 프랑스, 라트비아/리투아니아 AESA레이더:이탈리아 (한화시스템: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무인기용 개발협력)
	'22.11	폴란드	천무 다연장로켓(1차)	5,048	
	'23.12	폴란드	K9 자주포(2차)	3,447	
	'24.04	폴란드	천무 다연장로켓(2차)	2,253	
	'24.07	루마니아	K9 자주포	1,383	
	'25.09	노르웨이	K9 자주포	768	
	'25.09	스웨덴	MCS	150	
	'25.12	에스토니아	천무 다연장로켓	437	
	'25.12	폴란드	천무 다연장로켓 (3차)	5,600	
	'26.01	노르웨이	천무 다연장로켓	1,316	
	'26.04	폴란드	천무 다연장로켓(3차 후속)	2,365	
현대로템	'22.08	폴란드	K2 전차(1차)	4,499	K-전차: 폴란드,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25.08	폴란드	K2 전차(2차) 등	8,981	
LIG D&A	'23.12	루마니아	신궁	118	천궁-II:노르웨이,신궁: 에스토니아
한국항공우주	'22.09	폴란드	FA-50 경공격기	4,208	FA-50: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자료: 언론자료, 각사,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유럽 현지 생산·조립 및 MRO 시설 투자 계획

기업명	국가 위치 (도시)	파트너	구조 및 현황	생산 무기	생산 규모	사업 범위	투자 규모	착공/완공 시점	내용(비고)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루마니아 듬보비차 (Dâmbovița)	ROMARM / PATROMIL (루마니아 국영 방산지주 / 방산협회)	Hanwha–Romania JV (한화 주도)	K9, K10, IFV (레드백 미정), 미래 무인 전투시스템	-	연구, 생산, 유지보수 통합	2억 유로+	'26.02/ '27~'28년 목표	• 부지 선정과 승인 등 행정 절차 완료 • 유럽 최초 지상방산 무기체계 전용 시설. 약 2천명 일자리 창출 • 루마니아 차세대 IFV 생산 및 운용 초반 최소 70% 현지화 합의 • 양산: '27년~'30년
	폴란드 미확정 (포즈난 인근 유력)	WB Electronics	JV(한화에어로 51%, WB 그룹 49%)	CGR-080 유도탄 생산	-	생산	20억 PLN	2H26/ 2Q28 목표	• 폴란드·루마니아 등 유상증자 조달 금액 약 6천억원 내에서 결정 • 약 250명 일자리 창출 계획 • 양산: '30년부터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현지 제조업체	방산 협력 패키지 (정부 제안 단계)	40mm 탄약 생산, K9 자주포 & 천무 MRO	연간 30만발 이상	생산 & MRO	1억 유로	-	• €260m 규모 방산협력 패키지 협의 • €25m 투자, 40mm 탄약공장 건설 • €23m 투자, K9, 천무 MRO 센터 건립 • 레드백 IFV 제안 계획
현대로템	폴란드 글리비체 (Gliwice)	PGZ (부마르-와벤디)	기술 이전 (라이선스 현지생산)	K2PL, 구난, 공병, 교량 전차	K2PL 61대 + 계열전차 81대	현지생산, 유지보수	-	'25년 기술이전 착수/ '28년 생산	• K2GP 116대 한국생산 + K2PL 61대 현지조립, K2 운영 전진 기지로 활용 • 계열전차 81대 현지생산 • 양산: '29~'30년
	폴란드 포즈난	PGZ	MRO·후속 지원 거점	K2 전차 MRO, 개량, 후속지원	-	유지보수, 개량, 후속 지원	-	-	• 폴란드 유럽방산법인 거점 • K2 전차 유지보수, 개량, 후속지원 • MRO 기술 4단계(최고 수준) 이전 계획

자료: 언론자료, 각사, 삼일PwC경영연구원

Business Contacts

PwC Korea 방위산업센터

김태성 Partner
Leader, Samil PwC
tai-seong.kim@pwc.com

신민용 Partner
Leader, PwC Consulting
min-yong.shin@pwc.com

나상희 Partner
Samil PwC
sang-hee.rha@pwc.com

남명렬 외부자문위원, 박사(Academic Partner)
고려대학교 경제기술안보연구원, K-방산 연구센터 센터장
mynam64@korea.ac.kr

이준우 Partner
Assurance, Samil PwC
joon-woo.lee@pwc.com

김병욱 Partner
Assurance, Samil PwC
byung-wook.kim@pwc.com

김재헌 Partner
Assurance, Samil PwC
jae-hun.kim@pwc.com

이흥수 Partner
Assurance, Samil PwC
heung-su.lee@pwc.com

장윤경 Partner
Assurance, Samil PwC
yungyung.chang@pwc.com

한재상 Partner
Assurance, Samil PwC
jaesang.han@pwc.com

한현식 Partner
Assurance, Samil PwC
hyun-sik.han@pwc.com

한지용 Partner
Tax, Samil PwC
ji-yong.han@pwc.com

홍석형 Partner
Deals, Samil PwC
seok-hyoung.hong@pwc.com

문상철 Partner
Deals, Samil PwC
sang-chul_1.moon@pwc.com

소주현 Partner
글로벌통상센터, Samil PwC
so.juhyun@pwc.com

이보화Partner
Sustainability, ESG, Samil PwC
bo-hwa.lee@pwc.com

김병일 Partner
Public, Samil PwC
byoung-il.kim@pwc.com

이정규 Partner
Public, Samil PwC
jake.lee@pwc.com

정경인 Partner
PwC Consulting
kyungin.jung@pwc.com

이주형 Partner
PwC Consulting
tommy.lee@pwc.com

김태형 Partner
PwC Consulting
taehyung2.kim@pwc.com

PwC Korea 방위산업센터 홈페이지
Aerospace & Defense

PwC Korea 방위산업센터 교육 플랫폼
Knowledge sharing site

Author Contacts

이 희 정 수석연구위원

삼일PwC 경영연구원
heuijung.lee@pwc.com

삼일PwC경영연구원

최 재 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PwC Korea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PwC Korea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PwC Korea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PwC Korea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606W-RP-077

© 2026 PwC Kore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Korea group of member firms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pwc.com/kr